

우리네아이들

보육활동의 길잡이

2005 11|12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2가 190-10 여성평화회의집 2층 (우) 120-012

☎ | 0505-362-8568 FAX | 0505-362-8569

e-mail | kdta@chollian.net

홈페이지 | www.kdta.or.kr

어린이 권리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우리가 누구든지, 우리의 부모님이 누구든지, 그리고 피부색이 어떤간에, 남자인지 여자인간에, 영어를 쓰든지 한국어를 쓰든지 서울말을 쓰든지 사투리를 쓰든지, 무슨 종교를 믿든지, 또한 장애인이면 아니건, 부유하건 가난하건간에 상관없이 우리 어린이 모두는 이 선언문에 적혀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어린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질 권리가 있다.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어린이마다 지니는 개성이 존중되고, 특이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문제로 취급받지 않으며, 다양한 발달과정과 그 속도의 차이가 인정되며, 어른들과는 다른 어린이만의 독특한 사고체계를 인정받는다.

1. 어린이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는 어린이가 어른들의 칭찬과 꾸중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해나가고 자신이 행동하는 것을 책임지는 능동적인 존재라는 것과, 어린이의 의사가 어른의 의사와 마찬가지로 존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1. 어린이는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가 마음껏 노는 것은, 다양하고 자극이 많으며 위험하지 않은 물리적 환경 뿐만 아니라 놀고 싶을 때 놀 수 있고, 어른이 가르쳐주는 말, 행동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대로 소리 지르고 뛰어다닐 수 있는 다양한 표현의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안정된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안정된 보호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보호되는 물리적인 환경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사회로부터 동등하게 존중받을 권리, 항상 부모, 사회로부터 적극적으로 따뜻한 애정을 느끼고 도움을 받을 권리, 폭력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될 권리를 의미한다.

1. 어린이는 친구를 사귀는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친구들과 어울려 노는 것을 격려받고 피부색이 다른 친구, 몸이 불편한 친구 등 다양한 친구들과 사회적 관계를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어린이는 어른과 종속적인 관계가 아닌 동반자로서 관계를 가지며 신뢰감과 애착이 있는 관계를 형성할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신의 생리적 욕구를 편안하게 충족시킬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즐거운 식사시간을 가질 권리와 균형있고 공해 없는 음식을 먹을 권리, 충분한 휴식을 가질 권리가 있다. 또한 적절한 휴식공간과 어른의 도움없이 어린이 스스로 배설할 수 있는 시설을 가질 권리가 있다.

1. 어린이는 자연 속에서 자라날 권리가 있다.

어린이는 햇빛과 바람을 맞고 흙놀이를 할 권리, 옷버릴 걱정없이 마음껏 뛰어놀 권리가 있다.

우리네 아이들

법률 107호 2005년 11/12일

첫발행 1992년 5월 25일 | 펴낸곳 한국보육교사회
펴낸이 서은희 | 옮긴이 이강선주, 류지민, 이성봉, 김희정
펴낸날 2005년 11월 8일

2	여는 글 아직 남은 소명이 있다면, 그 것은 소통과 조화를 위한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최선희
4	보육정책 06년 보육예산안 검토의견 - 시장화로 가는 첫걸음?	이윤경
11	보육활동 아동교육 보육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	남명자
19	안전보육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 - 나의 사랑하는 아이들! 를 읽고	이보경
21	평등 7차년 보육기 일상의 활동과 글쓰기에 대해...	강영신
33	좋은 그림책소개 얘들아, 이렇게 놀아볼래?	이지영
36	그림책을 읽어주고 아이들과 함께 읽은 가을 그림책 두 권	고영미
38	보육활동재안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전하는 "해피바이러스"	한종례
48	옛 노래와 놀이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한화!	고정미
53	함께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윤선영
59	아이들과의 하루 아이들의 세상만들기 선봉어린이집 만1세반 아이들	서재림
61	보육교사일기 다시 보육교사를 시작하며	김영금
63	육아일기 과충우들 늦깎이 초보엄마의 육아일기 제8탄	김수연
66	중앙활동 활동보고 한일보육교류연수 외	편집부
73	세상읽기 시설장의 눈으로 본 세상	이민희
75	기타소식모음 알림판 후원에주셔서 감사합니다	
77	편집후기	

아직 남은 소명이 있다면,

그것은 소통과 조화를 위한 또 다른 선택이 필요하다.

최선희 · 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사무국장
현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사무처장

“한번 만나도 한번만나도 심장 속에 남는 이 있네”라는 이는 북의 노래 중 ‘심장에 남는 사랑이’라는 노래가사다. 가을을 맞이하면서 소슬바람에 이는 왠지 쓸쓸한 마음을 행여 추스려 보려는 마음에서 언급했을 것이라는 선급한 판단은 버리도록.

나의 젊은 시절의 열정과 희망을 모두 쏟아 부었지만 아깝지 않은 그런 조직이 있었다면 그것은 한국보육교사회의 전신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였다. 보육의 문제에 척박했던 그 시절에 만난 나의 동지들은 조직에 대한 애정과 헌신으로 나와 보육운동을 성장, 발전시켜 주었고 그 때의 많은 사람들이 현재는 보육현장에 남아있지는 않지만 꾸준히 이 사회의 모순을 극복하려는 의지와 열정의 근원이 된 그들은 내 심장 속에 남는 사랑이 되고 있다.

육아문제를 통해 변혁을 꿈꾸던 그 시절, 여성의 보디나온 자유와 해방은 출산과 육아의 문제를 사회화시켜야만 가능하다고 꿈꾸었던 그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다. 그래서 밤과 낮 구분 없이 아이와 부모 그리고 자신들의 연마를 위해 젊음을 바친 그녀들이 있었다. 아이와 부모와,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 작은 공동체를 일구어나갔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를 꿈꾸었던 어쩌면 지금도 그 연장선에서 보육현장의 발을 일구어나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보육노동조합이 건설된 지금 한국보육교사회의 방향과 역할을 고민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지도 모른다. 보육노조 건설이 최대 목표였다면 완전한 해소가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어린이와 교사, 그리고 부모와 지역사회의 완벽한 소통과 조화를 꿈

꾸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더 확장된 운동영역 속에서 풍부한 창의성이 요구되는 운동을 펼쳐나가는 일이 일차적인 목표를 이룬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소통과 조화’ 사실 보육교사만으로 올바른 보육을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제도와 정책의 뒷받침과 실질 운영에 있어서는 시설장과 교사, 그리고 부모가 함께 머리는 맞대고 운영의 묘를 살려가야만 하는 것이다.

간혹 부모의 참여가 간섭으로 느껴져 불편할 때가 있을 것이다. 사실 보육시설 전반을 볼 수 없는 부모의 요구나 바람이 매우 이기적으로 비쳐질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보면 주인의식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이 많다는 것이다. 판매자와 구매자의 느낌처럼 되어져 있을 때 그러한 것이다. 이들과 좀 더 많은 정보를 나누고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지위를 부여 할 때 서로의 느낌이 다를 것이다. 특히 척박한 보육여건을 개선하는 일은 부모의 지지와 동의 없이 해결해 나가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우리들이 낸 세금은 우리 아이들에게로’를 외칠 수 있는 부모를 조직하고 그들과 호흡해 나가는 일은 이제부터 할 일이다.

시설장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다. 모든 운영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그 책임감으로 인해 많은 권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한데 이는 교사와 부모의 책임을 나눠가지는 선에서 가능한 것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설장, 부모, 교사가 다 함께 참여하는 어린이집운영위원회가 잘만 운영되면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제도가 기구가 만들어 졌다고 해서 당장 완성적인 운영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기구로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차분하게 그리고 삼자가 신뢰 속에서 운영해 갈 때 그 역할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다.

소통과 조화는 마음만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운영위원회라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바로 그 속에 소통과 조화의 정신이 발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보육교사회는 오랜 전통이 있는 만큼 ‘소통과 조화 속에 공동체 정신’을 되찾는 보육이 되도록 하는데 그 방향을 두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진중한 발걸음을 옮기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심장에 남는 사랑들의 희망을 위해 나도 기꺼이 함께 해야 할텐데....

06년 보육예산안 검토의견-시장화로 가는 첫걸음?

이윤경 · 전국보육노조 사무처장

1. 들어가며

지난 9월 여성가족부는 06년도 보육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총액에서 보면 05년도 보다 32.1%가 증가하여 총 7,928억이며 여성가족부의 전체 예산(8,717억)중 무려 90% 이상이 보육에 배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은 예산 규모로 판단한다. 보육이 가지는 사회적 중요도에 비해 아직은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지만 적어도 여성가족부 안에서는 핵심사업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이번 06년도 보육예산안을 보면서 증액에 대해 마냥 환영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그것은 증액된 예산의 대부분이 보육료지원이고 국공립 신축비는 오히려 대폭 감소했기 때문이다.

하나의 정책안에서 예산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는지를 보면 정책의 성격을 알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국공립시설확충을 포기하고 아동별 지원방식으로 보육예산을 개편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제 06년도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보자.

자료1) 06년도 보육예산 요약 (여성가족부 발표자료에서)

(단위: 백만원)

구 분	'05년	'06년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총 계	600,090	792,816	192,726	32.1
□ 보육시설 운영지원	273,754	300,352	26,599	9.7
- 보육시설 종사자인건비	262,243	282,798	20,556	7.8
- 교재교구비	10,044	10,841	797	7.9
- 차량운영비	1,467	5,713	4,246	289.4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	-	1,000	1,000	신규
□ 보육료지원	267,087	434,847	167,760	62.8
- 0~4세 영유아보육료	169,858	271,650	101,792	59.9
- 두자녀보육료	6,114	9,075	2,961	48.4
- 만5세아 무상보육료	76,895	128,430	51,535	67.0
- 장애아 무상보육료	14,220	24,631	10,411	73.2
- 입양아 무상보육료	-	1,061	1,061	신규
□ 기능보강	50,420	50,741	321(0.6)	
- 국공립시설 신축	38,280	15,048	- 23,232	- 60.7
-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3,445	1,806	- 1,639	- 47.6
- 중개촉·개보수	7,548	32,978	25,430	336.9
- 장비비	187	909	722	386.1
- 시군구보육정보센터	960	-	- 960	- 100.0
□ 보육인프라	8,829	6,876	- 1,953	- 22.1
- 보육정보센터 운영	1,224	1,285	61	5.0
- 청사어린이집운영 등	7,605	5,591	- 2,014	- 26.5

자료2) 사업별 주요내용 (여성가족부 발표자료에서 발췌)

(단위: 억원/ 천명)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구 분	'05년 (아동수)	'06년 (아동수)	내 역
□ 영유아보육료지원	2,671 (408)	4,348 (608)	- 예산 전년대비 62.8% 증가(1,677억원 중) - 지원대상 확대(41만명→61만명)
-0~4세 영유아보육료	1,699 (272)	2,717 (407)	- 도시근로자평균 70%까지 지원('05년 60%) - 지원비율 확대(차상위 계층 100% 지원)
-만5세아 무상보육료	769 (95)	1,284 (154)	- 도시근로자평균 90%까지 지원('05년 80%) - 지원아동 59천명 중 - 지원금액: 보육료 전액(월 158천원)
-장애아 무상보육료	142 (9)	246 (15)	- 지원아동 6천명 중 - 지원금액: 보육료 전액(월 311천원)
-두자녀보육료	61 (30)	91 (30)	- 지원단가 인상 (보육료의 20%수준→보육료의 30% 수준) - 지원금액: 아동연령별로 47천원~93천원 지원
-입양아 무상보육료	-	11 (1)	- 신규반영 (1천명) / 보육료 전액지원

저소득층 아동 보육료 지원비율 확대내용

소득 계 층	지원비율(0~4세, %)		비 고
	2005년	2006년	
법정저소득층	100	100	-
차상위계층	80	100	지원비율 인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50%	60	70	지원비율 인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60%	30	40	지원비율 인상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70%	-	40	'06년 신규반영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등 취약보육 지원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05년 123억원→'06년190억원)
- '05년 2천명에서 3천명으로 확대
-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05년 686억원→'06년 847억원)
- '05년 182천명에서 191천명으로 확대(아동수로 지원)
※ 현행 재원 범위 내에서 기본보조 방식으로 지원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인건비지원('05년 12억원→'06년 38억원)
- '05년 200명에서 600명으로 확대

국공립시설 신축 등

- 국공립 보육시설 등 신축(168억원) - 국공립시설 100개소, 장애아전담시설 10개소
※ 국공립시설은 BTL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활용
- 노후된 보육시설 기능보강('05년 77억원→'06년 339억원)
- 증개축 423개소, 개보수 800개소, 장비비 909개소
- 농어촌지역, 장애아전담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지원('05년 15억원→'06년 57억원)
- 지원대상: '05년 1,647개소→4,777개소
- 지원금액: '05년 월 150천원→200천원

보육서비스 질 관리

- 보육시설 평가인증(6억원)
- 전국 보육시설 중 1천개소를 대상으로 실시
- 보육교사 국가자격관리 및 보수교육비 지원(17억원)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교부 및 보수교육비 지원
- 보육행정시스템 구축(10억원/신규사업)
- 전국 보육시설(약 27천개소)과 지자체(시군구 234, 시도16)를 연결하는 보육행정전망망 구축

2. 축소된 예산들

수치상으로 감소한 분야는 국공립시설 신축, 장애아전담시설 신축, 시군구보육정보센터 설치, 청사어린이집운영비이다.

이중 청사어린이집은 정부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자녀들을 위한 직장보육시설로 엄격하게 이야기하자면 행정자치부 예산에서 필요경비를 책정해야 되는 시설이다. 청사어린이집운영지원비는 보육예산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예산이다. 이 문제는 작년 국회 여성위원회에서도 지적받은 적이 있으나 여전히 보육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현재 중앙과 광역시도에는 모두 1개씩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단위에는 8개에 불과하고 그나마 서울 관악구와 강원도 강릉시를 제외하면 모두 경기도에만 있다. 아직까지 시군구 단위의 보육정보센터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중앙예산에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제외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의무를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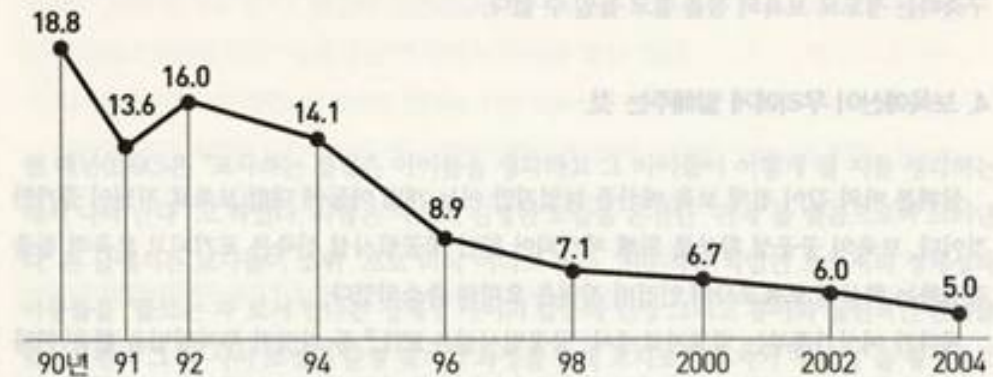
장애아전담시설 신축비 감소는 확대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내역 중에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과 연동하여 볼 필요가 있다. 즉, 정부가 장애아보육을 전담시설보다는 통합시설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정책방향을 결정한 것이라면 전담시설 신축비의 감소는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통합시설 인건비 지원 대상을 200명(05년)→600명(06년)으로 늘렸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대상아동의 극히 일부만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할 때 장애아보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 게다가 06년도에 증액된 장애아보육료지원은 1만5천명으로 전년도보다 6천명을 늘였으나 장애아통합시설 인건비 지원대상은 고작 400명만 늘어 결과적으로 교사 1인당 15명의 장애아가 배정되고 있다. 현재 법적기준(교사 1명 대 장애아 5명/3명)으로 인건비 지원을 한다면 3배이상 지원이 높아야 한다.

국공립시설 신축예산은 실망스러울 정도로 감소하였다. 지난해 말 여성가족부는 매년 400여개씩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어 2008년까지 시설비율을 1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금년도 신축 400개 목표도 채우지 못했을 뿐 아니라 06년도에는 신축예산을 100개소로 감소하면서 실제 국공립설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1) 영유아보육법 제 7조(보육정보센터) ①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여성부장관은 중앙보육정보센터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방보육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한겨레 05년 8월 16일자에서)

연도별 국공립시설 비율 (단위: %)



3. 인건비 지원 과연 늘었나?

표면적으로는 인건비가 증액된 것처럼 보인다.

05년도 2,622억에서 2,827억으로 205억(7.8%)으로 종사자인건비가 증액되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영아, 장애아, 시간연장 등 취약보육지원을 위한 증액분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이들 취약보육 증액분을 모두 합하면 254억원이다.

-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05년 123억원→'06년190억원) : 증액분 67억원
-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05년 686억원→'06년 847억원) : 증액분 161억원
- 장애아 통합보육시설 인건비지원(05년 12억원→'06년 38억원) : 증액분 26억원

결과적으로 기본 인건비 지원금액은 49억원이 줄어든 것이다.

전체 인건비에산 중에 1,075억이 취약보육지원이다. 취약보육 지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시간연장 및 장애아통합시설에 실제 지원되는 인건비는 1인당 52만원에 불과하다. 게다가 민간시설 영아반 지원은 총 19만1천명의 영아에 대해 영아 1인당 36,950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실제 보육교사가 지원받는 금액은 말고 있는 영아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3명의 경우 11만원/ 5명의 경우 18만4천원) 이것도 영아반 지원금이 보육교사 인건비로 사용될 때 그렇다.

취약보육의 활성화는 보육교사들의 저임금을 감수하는 희생 속에서만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이 제대로 대우받지 못한다면 평가인증제의 시행이나 보육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정도로 보육의 질을 결코 높일 수 없다.

4. 보육예산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살펴본 바와 같이 전체 보육 예산은 늘었지만 이는 개별 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이 증가한 것이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제기되어 왔던 국공립시설 신축은 포기되고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인 보육교사의 인건비 지원은 오히려 축소되었다.

게다가 여성가족부는 발표자료에서 '국공립시설은 BTL²⁾ 등 다양한 투자방법을 활용' 한다느니, 민간지원은 교사 인건비 지원이 아닌 '아동 수에 따른 기본보조 방식으로 지원' 한다느니 하는 식으로 전체 보육현장을 시장방식으로 재편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 정부는 도시근로자 평균소득까지의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대신 인건비 지원 축소를 통해 개별 시설이 원아모집경쟁을 통해 생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거기다가 보육료지원대상이 아닌 평균소득자와 그 이상은 필연적으로 상승하는 보육료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보육료의 결정항목이 [종사자 인건비 + 교재교구비 + 급간식비 + 관리운영비]로 구성되면 별도의 인건비 지원이 없을 경우 보육료 인상은 불가피하다. 보육료 지원대상을 확대한다고 하지만 여태까지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일해 온 보육교사들의 실질적인 임금 현실화가 이루어진다면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보육료는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거나 보육의 질이 보육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명제를 생각한다면 보육교사의 인건비는 보육료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지원하여야 한다. 보육료는 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아동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수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결국 해결점은 국공립시설의 비율을 높이고 민간시설의 공보육적 성격을 강화하여 민간시설까지 사실상 공공보육시설로 운영될 수 있는 구조마련과 지원을 병행하는 것이다.

2) BTL이란?

1) 방식 - 민간기업이 자금 투자하여 공공시설 건설(Build)

- 완공후 정부로 소유권 이전(Transfer)하는 대신 일정기간동안 시설 사용·수익권한 획득
- 민간이 정부에 시설 임대(Lease)하고 임대료로 시설투자비 회수

2) 매점, 학원 등 다양한 부대시설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 민간투자분에 대한 이익보장

보육교사는 무엇으로 사는가?³⁾

남명자 ·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위원, 숭의여자대학 가족복지과 전임강사

벤 데넨(1990)은 "교사라는 경험은 아이들을 생각하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될 지를 생각하는 데서 나타 난다" 고 하였다. 사람은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온전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드러낸다. 본 글에서는 교사들이 소위 '프로 의식'이라고 하는 '전문적인 직업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아동들을 '돌보는 자'로서 만나는 정체성 사이의 갈등과 긴장 그리고 유아와 실천적인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 둘 사이 조정과 균형 찾기의 과정을 통해 교사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자기성장을 이루어가는 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문적인 교사'와 '돌보는 자로서의 교사'의 갈등

우리 사회에서 '교사'라고 하면 보통 양육자와는 구별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태도 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이를 '돌봐주는 것' 만으로는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빠져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의 교사의 일기는 이런 '전문적인 교사'와 '돌보는 자'로서의 교사가 갈등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는 프로다. 직장에서는 직장일 만 생각하자. 지금부터 나는 유란 엄마가 아니다. 현성,수연, 은예의 담당교사다. 나는 프로이며, 최고의 프로가 되기 위해 항상 노력중이다. 항상 노력 또 노력 중이다. (2004년 7월 12일 김특수교사 교사일기 중에서)

현성이기 설사로 결석! 우아한 교사가 될 수 있었다. 아이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 교사가 될 수 있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유아가 교사의 말을 듣게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 소리 지르는 것이

3) 이 글은 "장애유아 통합교육에 나타난 '돌봄' 관계 형성과정"이란 본인의 박사논문 중 일부내용임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현성의 못된 행동을 보면 순간적으로 목소리가 높아진다.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말로 정신지체아동들이 천사와 같다고 말하는데 전혀 틀린 말이다. 천사가 아니라 말뚝꾸러기이며 말 안 듣는 골칫덩어리이다. 그래서 교육과 치료가 필요한 것이다. 현성은 그 중에서도 종종에 속한다. (2004년 6월 19일 김희숙교사일기 중에서)

___ 각 아동마다 적합한 교육방법을 찾으려고 한다. 하지만 유아와 2시간만 있으면 이러한 나의 결심은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다. 공중으로 날아가 버린 나의 결심을 다시 붙잡아 오기가 너무나 어렵다. (2004년 6월 25일 김희숙교사일기 중에서)

3주 동안 현성과 계속 해서 씨름했다. 점심시간에 밥 먹이기, 수시로 나가는 현성이 잡오르기, 시시때때로 미운 행동하는 현성이 혼내주기 등등... 꼭 내 담당유아가 현성이 밖에 없는 것처럼 현성에 대한 고민뿐이다. 이것이 바로 현성의 문제점이다. 내가 담당하는 3명의 아동에게 골고루 관심과 애정과 교사의 고민이 가야 하는데 수현이와 은혜에게 미안하다. 어떻게 조율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나의 능력 부족인가?! (2004년 7월 1일 김희숙교사일기 중에서)

이에 대한 연구자의 답 글은 다음과 같다.

우아한 교사, 2시간이 지나면 날아가 버리는 결심, 교사로서의 균형 잡힌 사랑 이런 것들을 붙잡고 꾸러기 현성과 별이는 매일 매일의 전투에서는 모두 녹초가 될 것 같은데요. 우아한 교사, 능력 있는 교사의 이상에 대해 되돌아보고 왜 2시간이 지나면 날아가 버리는 현실성 없는 이상을 갖게 되었는지 누가 그런 교사상을 심어주었는지 생각해 봅시다. 소리치는 교사는 비합리적이고 무능력한 교사인지· 감정은 이성 보다 낮은 수준인지· 등등..... 이런 인간관계의 틈새로 빠져들어 나오는 것들을 드러내 놓고 되돌아보고 평가해보고 기존의 나의 생각과 느낌을 다시 생각해 보면서 교사 아동 부모가 살아있는 관계의 망 속에서 조금씩 성장해 간다고 믿어요.

'전문적인 교사' 상은 자식을 돌보는 '유란이 엄마'와는 대조적인 것이며, '전문적이며 우아한 교사' 상을 망치는 현성은 돌보는 자로서 마음을 몰두해서(Buber의 표현에 의하면 온 존재를 기울여) 만나야 하는 존재'라기 보다는 치료와 교육의 '대상'으로 분류된다. 또한 '전문적

인 교사'로서 내가 맡은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이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현성은 '전문적인 교사'가 되기에는 부족한 나의 한계를 드러나게 한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교사'와 '돌보는 자로서의 교사'가 갈등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문적인 교사'상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 '전문성' 담론에 자신을 동일시하며 그 담론에 비추어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적인 교사'와 '돌보는 자로서의 교사' 균형 찾기

이렇게 '전문성'과 '돌봄'을 대립적인 것으로 생각하던 교사는 본인이 '유란이를 돌보는 엄마'로서의 정체성이 심화되고 현성과 마음이 몰두된(감정이 실린) 돌봄의 실천적 관계를 맺게 되면서 현성이 엄마의 마음을 헤아려 보게 된다. 그리고 또한 장애유아를 자식으로 둔 자신의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게 된다. 다음은 이를 보여주는 교사의 일기이다.

우리 아기 유란이가 하루가 다르게 자라고 이쁜 짓이 늘어 간다. 벌써 낮가림을 해서 낯선 사람이 안으면 예원의 눈빛으로 날 쳐다본다. 그 눈빛에 가슴이 뭉클하고 기쁨에 세상이 하얘지는 것 같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아프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불길한 생각이 머리를 감싼다. 오늘은 현성이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가는 날이어서 어린이집에 오지 않았다. 유란이를 통해 현성이 어머니의 절망감, 슬픔, 그리고 희망을 느낄 수 있다. 세상 어머니의 마음은 모두 비슷비슷한 것 같다. 부디 의사선생님께 희망적인 말만 들었기를 기도한다. 그래서 앞으로 한결음씩 나아갈려는 현성이 어머니의 바람이 꺾이지 않기를 기도한다. (2004년 7월 19일 김희숙교사일기 중에서)

금요일에 현성이 어머님께 편지를 보냈다. 아무래도 상담의 충격이 큰 것 같다. 월요일 어제 답장이 왔다. 금요일 이후로 몸살이 나셨다고 한다.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로 인한 몸살일 것 같다. 마음이 아프다. 시어머니 생각이 난다. 도련님이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이번에는 좀 오래 있을 것 같다. 시어머니도 정신적 충격, 스트레스로 인해 몸살이 나셨다. (2004년 7월 1일 김희숙교사일기 중에서)

교사 자신도 엄마가 됨으로써 현성이를 치료와 교육이 필요한 많은 '대상들' 중에 하나가 아닌 세상에서 유일한 한 어머니의 자식으로 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교사 본인의 모성적 돌봄의 경험으로 인해 현성이 어머니와 공감적 이해를 나누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공감의 돌봄관계는 자식을 길러본 경험이 없는 미혼 교사에게도 발견된다. 본인이 직접적으로 자식을 길러보는 경험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정방문이나 장애유아 부모님과 의견을 나누게 되면서 공감을 나누게 됨을 볼 수 있다.

...현성이(ADHD) 가정방문을 다녀오고 나서 현성에 대한 어머니의 걱정과 사랑 많이 느껴졌어요. (4월 13일 전교사-부모 수첩 중 교사가 쓴 글)

...가정방문 때도 느끼고 어머니가 써 주신 글들에서도 어머니에게 준동이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런 존재인지가 많이 느껴져요. (4월 22일 전교사-부모 수첩 중 교사의 글)

현성이나 준동이를 교사로서 한 유아로서 볼 뿐만 아니라 한 어머니의 귀한 자녀라는 사실을 어머니와 공감하면서 느끼게 됨을 볼 수 있다. 그냥 내가 맡은 아동 중에 한 아동이라는 생각과 한 어머니의 하나 밖에 없는 귀한 자식이라는 인식은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공감은 교사와 부모 간에 대화를 나눌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준동이(대사장애 및 뇌병변)에게는 칭찬과 자신감이 제일 큰 약인데 제 성격이 급해서 인지 자꾸 다그치고 혼내고 빨리빨리 하길 바라니 아이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4월 6일 전교사-부모 수첩 중 어머니가 쓴 글)

이에 대해 교사는 다음과 같이 답글을 보냈다.

저도 그래요...맘은 느긋하게 기다려 주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난 뒤 보조가 뒤따라 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수업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면... 혼자 할 수 있게, 준동이 만의 작품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고 싶은 맘 반, 수업시간 안에 작품이 나와야겠다는 맘 반이 서로 싸웁니다. (4월 9일 전교사-부모 수첩 중 교사의 글)

이런 공감은 다른 아동 부모와의 관계에서도 나타난다.

...현성이 다니는 병원에서 하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에서 오늘은 감정의 씨앗심기를 했습니다. ...현성은 웃는 모습과 우는 모습을 연두색으로 그렸는데 한 눈에 알아보겠더라고요. 말이 사람이니 누가 7살파리의 그림으로 보겠어요. 그렇지만 제 눈엔 어찌나 예쁜 그림으로 보이던지 아무래도 고슴도치 엄마인가 봅니다. 하하하... (5월 17일 전교사-부모 수첩 중 어머니가 쓴 글) 이에 대한 교사의 공감적인 답글은 다음과 같다.

...저도 고슴도치 선생님인가 봐요. 이미선 선생님께서 함아영 선생님께서 서옥경 선생님께서 다시 함아영 선생님께서 (현성이) 애정 전선에 제가 끼어들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한 듯 보이지만 절 바라만 봐도 그저 한 번 웃어주고 안겨주는 걸로도 큰 행복감을 느끼니까요~ !! (5월 18일 전교사-부모 수첩 중 교사가 쓴 글)

교사와 부모 간에 이런 공감은 '저도'라는 표현에서 '우리는'이라는 표현으로 발전하게 된다. 현성이 어머니가 현성이가 집에서 혼잣말을 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는 글에 대한 교사의 답글이다.

...어린이집에서도 혼잣말이 전혀 안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가 걱정하시는 것만큼은 아닌 것 같아요... 전 어린이집 상황밖에는 모르지만 현성이 정도면 집단상황이나 어린이집 상황 등을 알고 좀 더 편한 가정에서 더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제 현성이 7살이잖아요. 그리고 몸을 못 가누는 중증장애를 가진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제일 힘든 덕목이긴 하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이 현성이에겐 큰 힘이 될 거예요! (7월 20일 전교사-부모 수첩 중 교사가 쓴 글)

"우리들"이라는 표현은 다른 유아의 부모와의 편지 교환에서도 나타난다. 준동이(대사장애 및 뇌병변)어머니가 쓴 글이다.

...오늘 애경에서 하는 심리미술 마지막 수업이 있어요. 선생님께선 그림 형태가 안 나오고 너무 많은 학습을 시키지 말라고 하시며 정신과 상담을 권하시더라고요. 이런저런 사정 얘기를 안 해서인지 아이의 상태를 모르고 무작정 시키는 그런 엄마로 비춰졌나봐요. 속으로 내심정을 알까 하며 인정하면서도 다시금 마음이 가라앉네요. (5월 18일 전교사-부모 수첩 중 어머니가 쓴 글)

이에 대해 교사는 다음과 같이 답글을 쓴다.

.....그런 말들에 너무 속상에 마세요.....우리들은 마음속에 부처님 가운데 토막을 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5월 19일 전교사-부모 수첩 중 교사가 쓴 글)

교사와 부모가 공감할 나누며 친밀감과 신뢰감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Gilligan은 정의의 도덕과 돌봄의 도덕을 대비해서 설명하면서 정의의 도덕이 서로 간에 '합의'를 중시한다면 돌봄의 도덕은 서로 간에 '공감'을 중시한다고 하였다. 공감을 통해 서로 대화가 활성화 되고 서로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되어 상대에 맞게 돌볼 수 있게 된다. 이런 관계를 통해 교사와 부모는 자신만의 관점으로 유아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교사와 부모의 사이(between)의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공감의 돌봄관계는 현성이에 대한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관심을 보여주는 돌봄의 관계로 발전되어 교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음을 다음의 일기가 보여 주고 있다.

새로 시작하는 마음. 정체감을 찾고 내가 지금 어린이집에서 왜 일하는지 5년 후에 어떤 모습, 어떤 자리에서 일할지 생각하며 일하자. 한 학기가 시작되고 가을이 절정에 이르고 있다. 현성이와 은혜의 지시 따르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현성이가 조금씩 나아져서 내년엔 초등학교에 가서 완전통합반에 가는 것을 목표로 이 가을을 불태우자. (2004년 10월 1일 김특수교사일기 중에서)

현성이의 교육적 발전이 교사 자신의 정체성과 연결되고 한 유아의 교육적 성장과 발달을 위해 "가을을 불태우는" 교육적 열정으로 발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야기는 자신과 자신이 처한 세계를 이해하는 정체성 형성의 도구가 된다. 우리들은 파편화된 경험들을 이야기의 '줄거리 구성' 속에 적절히 위치지움으로써 부분들 간에 맺어진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다. 과거의 나를 현재의 나와 관련짓고 그렇게 형성된 나를 기반으로 미래의 이야기를 기대함으로써 우리는 스스로를 형성시켜 나간다(Somers & Gibson, 1994). 위 교사의 일기 형식의 이야기에는 그 동안의 현성이와 교육적 관계에 대한 평가가 현재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고(지시 따르기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다.) 이것은 현성이에 대한 미래의 기대로 이어지며(내년에 초등학교 완전통합반에 가는 것을 목표로) 이와 같은 교육적 기대가 자신의 미래의 모습과 연결되어(5년 후의 내 모습) 정체성을 형성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벨 매넨(1990)은 "나는 아이들이 교사의 생활에서 차지할 수 있는 특별한 의미를 깨닫게 된다. 또한 나는 아이들이 자기가 선

생님에게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배움에 교육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는다."고 하였다. 위 교사의 모습에서는 교사라는 직업 정체성을 자신의 모성의 경험, 장애인들 둔 시어머니의 며느리 등 다양한 관계로 구성되는 자신의 삶 속에 통합시키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 나아가 자신의 자녀를 돌보는 모성의 정체성이 장애유아를 가르치는 교사의 정체성을 재해석하거나 재정의하도록 만드는 잠재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모성 정체성과 직업정체성을 상호 제약하는 관계로 보지 않고 교사로서의 직업 정체성을 적극적인 의미의 대안적 정체성으로 확립하고 모성 정체성과 함께 자신의 삶 속에 통합시키고 있다.

자녀를 길러 본 경험이 없는 교사의 경우에는 부모와의 공감적 이해를 통해 자신의 교사 정체성을 재구성해 나가게 됨을 볼 수 있다. 부모와 공감적 이해를 나눔으로써 전문 직업인으로서 자신이 맡고 있는 유아를 치료와 교육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와 전문 직업인 사이(between)의 시각에서 유아를 바라보게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베쉴(Pecheux)의 담론이론(노영주, 1998에서 재인용)에 의하면 '담론'이란 동일한 언어체계를 서로 다르게 사용하는 방식을 뜻한다. 이는 곧 언어는 원래 의미를 갖고 있지 않으며 담론이 의미를 생산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담론 과정은 의미를 생산하는 과정일 뿐 아니라 주체가 형성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 담론구성체에는 그 속에서 말하는 주체 곧 '소주체(the subject)'와 '대주체(the Subject)'가 있다. 베쉴는 담론구성체를 관장하는 것은 '대주체'라고 본다. 이 대주체는 담론 내에는 직접 등장하지 않지만 담론과정을 사실상 결정하는 일종의 힘 또는 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대주체는 무엇보다도 스스로를 주체라고 생각하는 소주체에게 인식되지 않는 상태에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개인은 담론구성체의 대주체의 호명을 받아 동일시를 통해 (소)주체가 된다. 개인이 이러한 호명에 대응하는 동일시 양상은 동일시(identification), 반동일시(counter-identification), 탈동일시(disidentification)의 세 가지로 나타난다. 동일시는 순응하는 주체, 반동일시는 반항하는 주체, 그리고 탈동일시는 새로운 형태의 주체라는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위 김교사의 사례에서는 처음에는 교사의 '전문성' 담론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형태로 나타나 '프로'로서의 교사 정체성과 '돌보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상반되는 것처럼 여겼다. 그 후 본인의 '유란 엄마라는 모성 정체성'이 '프로'로서의 교사정체성을 재해석하는데 영향을 미치게 되어 현성이를 특수교육 서비스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 뿐인 한 어머니의 아들로써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프로'로서의 교사정체성을 한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로서, 또 장애인을 아들로 둔 시어머니의 며느리 등 다양한 관계로 구성된 자신의

삶 속에 통합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말한 '전문성' 답론에 자신을 동일시하기 보다는 '전문성' 답론을 자신의 삶의 경험 속에서 재해석하고 성찰해 봄으로써 뼈때가 말하는 '탈동일시'에 근접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됨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탈동일시'에 의한 정체감 형성은 단순히 자녀를 돌보는 모성경험이나 장애유아를 '전문적'으로 가르치는 경험만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현상'이라는 한 고유한 개별성을 지닌 인격체와 맺은 교육적인 경험을 모성경험에 비취 성찰해 봄으로써, 그리고 모성경험을 '현상'이와의 관계에 되비쳐봄으로써 '탈동일시'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성찰적 사고와 태도를 통해 미래에 까지 연결된 자기 정체감을 형성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L. Goldstein(1997)은 "열정적인 교사는 학생들과 함께 하는 자신의 삶으로 인해 의욕이 넘치며, 그들과의 일로 성취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교사와 부모가 공감적 이해를 공유함으로써 교사와 유아의 열정적인 돌봄 관계로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장애유아를 교육이나 치료서비스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고유한 인격체적 존재로 만남으로써 '나'로 인해 '나'가 되어 서로의 정체성을 세워주게 된다.

함께 더불어사는 사회... - 나의 사랑하는아들아'를 읽고

이보경 · 회원



제 목 :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출판사 : (주)자음과 모음
글 · 그림 : 토베 케이코

내가 본 이 책은 만화로 되어 있고, 아직 완결되지 않은 책입니다.(현재 7권까지 나왔음.) 처음 이 책을 접했던 것은 어린이집에 장애아동을 보내시는 한 학부모께서 교사들 한 번 보라고 기증해 주어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은 자폐증을 가진 아이의 탄생에서 부모가 겪는 고통과 방황, 주위의 도움, 점차 발견하는 희망에 대한 책입니다. 이 내용은 실제 있던 사례들을 토대로 만들어 낸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중간 중간 장애 아동과 함께 사는 부모의 실제 이야기나 자폐증인 사람의 특징, 돕는 방법 등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느낀 점은 비장애아와 장애아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만의 노력으로 되지도 않고, 어떤 한 시설에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장애인에 대해 마음을 열고 그들이 사회에 들어와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저만 하더라도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통합하는 장애아동을 접하기 전에는 장애를 가진 분들이 낯설고 거부하는 상대이기만 했습니다. 어떤 장애가 되었든 장애를 가진 사람도 각자의 감정과 삶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어렸을 때 장애를 가진 사람을 접하지 못한 채 자란 아이는 커서도 그들을 거부하기 쉽게 된다고 생각합니다.(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아이들에게 통합교

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좋은 교육이 되기 위해 통합교사는 꼭 장애아와 비장애아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유아반(5세, 6세, 7세)에서 통합아동 3명씩을 포함하는 '통합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통합하지 않는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것보다는 좀 더 장애와 그 아이들에 관심을 갖고 조금이라도 다가갈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책을 보면서 나는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은 부모는 '죄인'이 아니라 사회에서 더 많은 관심과 도움을 받아야 하는 부모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장애아'에 대해 가정에서, 그리고 그 부모가 보내는 치료시설에서만 가르치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한 장애인이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심과 도움을 사회에서 같이 주어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를 가진 아이는 남의 아이라고만 생각했으나 이 아이들도 '내 아이'라는 생각에 조금은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나는 통합아동을 지도해 본 적도 없고, 제대로 공부를 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어린이집에서 접하는 장애아동과 이 책을 통해 현실적으로 '장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고 조금은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지금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외면하지 말고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장애'에 대해 외면하지 말고 알기 위해 공부한다면 이들을 대할 때 조금은 다른 자기 자신이 되어 있으리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적절한 도움을 제 때 줄 수 있는지 관심을 갖고 공부하여 실천한다면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일상의 활동과 글쓰기에 대해...

강영신 · 회원

아이들은 각 연령에 맞는 보육의 목표가 있다. 그리고 어린이집은 저마다의 보육철학이 있고, 개별 보육교사들은 또 자기 나름의 보육철학이 있다. 관행적으로 하는 주 단위, 월단위로 바뀌는 주제 설정에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면서도 매번 그에 대응하는 좋은 대안을 가지지 못했다. 올해 어린이집에서 가장 연령이 높은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서 연간교육계획에서 1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하는 고민을 연초에 많이 했다. 그 중 하나가 생태연못활동과 일상적인 글쓰기 활동이었다. 이번호에는 이 두 가지 활동에 대해 소개해 보고자 한다.

■ 생태연못을 둘러싼 1년간의 일상 활동들 ■

작년에 빨간 고무 통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미꾸라지도 사다 길러보고, 올챙이도 잡아다가 개구리가 될 때까지 길러보았고, 모도 심고, 미나리와 개구리밥 고마리도 함께 키웠었다. 작년에는 벼도 수확하여 영아반에서 죽을 끓여 먹었다. 올해는 2개의 큰 고무통이 더 생겨서 모두 3개였고, 이걸 연령별로 관리하기로 했는데 올해 우리 진달래 반은 2개를 담당하고 있었다.

※4월 모심기(우리반 아동 부모님에게 부탁)

교사: 우리 옥상 가든 모심자

아이들: 뭐 심어요.

교사: 모심자니까,

아이들: 뭐요 뭐 심는데요.

선생: 모 말아야 할되는 거.

아이들에게 모를 나누어 주고, 3,5포기씩 심어보기를 했다. 손의 느낌이 이상하다고하기도 하고, 모가 잘 심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5월 칠보산 나들이 (올챙이 잡아오기)

올해 가는 칠보산 첫 나들이에서 올챙이를 잡아왔다. 냇가가 아니고 깊은 웅덩이라 빠지기 쉬워 아이들과 함께 잡기엔 좀 위험했다. 내가 잡으니까 아이들이 박수도 쳐주고 조심하라고 걱정해 주기도 한다. 신혜이는 올챙이를 보더니 '애기씨 같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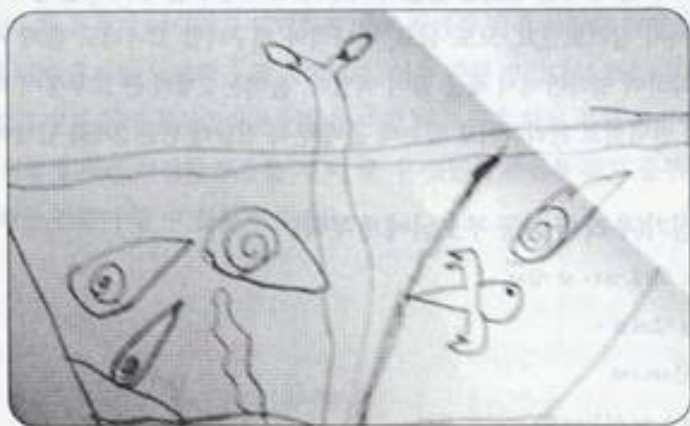
이날 땅도 파보고, 냉이도 캐고, 화전 해 먹을 진달래도 따 가지고 왔는데, 아이들은 다녀와서 그림을 그릴 때는 거의 올챙이만 그렸다.

*6월 관찰장에 모 그려보기

올해는 관찰장을 만들어 자연이나 관찰한 것을 기록하기로 했다. 대균, 대정은 모가 심겨져 있는 둥근 통까지 자세히 그렸다.

〈올챙이 그리기〉

아이들이 올챙이를 보면서 신기해한다. 작년엔 미꾸라지도 사다가 키워봤는데 가끔 비가 올 때 미꾸라지가 튀어나와선 그대로 말라 마치 멸치처럼 많이 죽어서 올해는 키우기로 했다.



*7월 고마리, 미나리, 개구리밥 관찰하기.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었는데 큰 개구리가 아니고 검은 색의 아주 작은 개구리가 되었다. 청개구리보다 약간 작았다. 개구리는 아가미와 허파로 같이 숨을 쉬어 올챙이 때는 물속

에만 있지만 개구리가 되면 땅에서도 살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아이들의 손바닥 위에 살며시 놔주면 가만히 보고 있다가 다시 연못으로 놔 준다.

*8월 피가 나왔다. 벼 이삭도 영글었다

아이들이 아주 신기해한다.

그런데 송충이가 생겼다. 마당에 있는 버드나무에 송충이가 많이 있는데 옥상까지 올라온 모양이다. 아이들과 함께 잡았는데 차마 밟아죽이지 못하고, 비닐에 담아 묶어서 쓰레기통에 버렸다. 9월에 버드나무를 베어버려 송충이는 없어졌다.

교사: 이것 벼와 약간 비슷한데, 이게 많으면 벼가 잘 자라네. 여기 이렇게 밀까지 잡고 뽑아 죽여야 돼 이듬은 '피'라고 해.

8월부터 관찰장의 그림에는 모(이제는 벼라고 해야 하나?) 말고 피도 가끔씩 그린다.



교사: 옥상 올라가자

아이: 자랄거 타려요.

교사: 아니 벼보러 가자.

아이들: 자랄거 타는 게 더 좋은데.

교사: 벼는 사람들 쌀자국 소리하고, 우리가 사랑해주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금방 근대. 달님도 크

게 하고 해님도, 바람도 크게 하고, 창새가 노래도 불러주고, 파지도 노래해주어서 잘 자라는데
우리가 매일 해나는 얼굴보다는 웃는 얼굴, 큰 소리로 웃는 소릴 들으면 잘 자라는데,
아이들: 우리 크게 웃자 하하..

우리 집 둘째 녀석이 물고기도 몇 마리 잡아와서 놔주었는데 없어졌다.

*% 참새

올해는 벼가 잘 영글었는데 이상하게도 추수하기 어려울 정도로 참새가 다 까먹었다.

교사: 어 벼가 어디 갔지?

아이들: 창새가 먹었어요.

교사: 그럼 어떻게 하나? 창새가 먹어 버렸대.

아이들: 그럼 우리 허수아비 만들어요.

(방으로 내려와서)

교사: 작년에 얘기 했던 선생님어 빠는 창새가 주었는데 장래는 어떻게 할까?

아이들: 우리가 해요.

아이들에게 천을 반으로 접어주고, 바늘로 아무데나 2군데만 꿰매면 된다고 했다. 모두
함께 주머니를 만들었다



교사: 우리 창새한테 우리 벼 먹지 말라고 하자.

유미: 창새야 이제 벼 먹지마라 창새야 이제는 집에서 먹어.

희상: 창새야 이 벼 벼를 먹지 마.

영희: 창새야 이제 벼 먹지 마.

관호: 선생님 '벼 벼를 먹지 마' 어떻게 해요?

내가 '벼 벼를 먹지 마' 라고 써주었다.

관호: 선생님 '지' 이거요 밑으로 내려요? 옆으로 가요?

교사: 지렁이의 '지' 같아요?

관호: 아니요

교사: 밑으로 가요.

관호: '새야 이제 벼를 먹지마' 라고 썼다.

매번 관호는 흘러 쓴 내 글을 보고 물어 본다 글을 쓰고 신문지를 넣고 색 끈으로 묶고 나
무릎 구해와 연못에 꽂았다. 글씨가 잘 보이지 않았다

9월 27일 옥상 생태연못

교사: 어떻게 창새가 벼를 먹을까?

신태: 허수아비에 앉아서요.

관호: 너무 높잖아!

영원: 여기 앉아서(낮은 허수아비)

관호: 다리가 짧아서 못 앉아.

미연: 날아서 가면 되잖아.

신태: 여기 앉아서요 (연못 테두리에)

지아: 손톱으로 딱 벼를 먹어요.

재성: 갈아서 먹어요.

병덕: 날아갈 다음에 벼죽한 입으로 찢어서

신태: 갈아서 찹쌀 벼를 먹고 먹어요.

관호: 창새가 통채로 먹어요.

교사: 허수아비가랑 무슨까?

영민: 허수아비 다시 만들어요.

재성: 허수아비 이렇게 세워나오 (빙 둘러서)

영서: 허수아비가랑 무슨까 아니에요?

지아: 모기장 해요.

교사: 참새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

재성: 그럼 우리가 숨어서 봐요.

영서: 우리가 여기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교사: 시끄러운데 참새가 오나?

재성: 조용히 하고 있으면 되요.

교사: 우리가 잊어도 몰라.

재성: 그럼 숨어 있으면 되요.

교사: 그럼 숨어봐.

아이들: (놀이기구 밑에 담 옆에 숨는다)

교사: 우리 참새한테 먹지 말라고 편지 쓰자.

아이들이 참새에게 쓴 시다

참새에게

참새야! 내 밥 먹지마

참새야! 내 배고파 먹지마

그럼 밥 좀 주면 먹니?

지아

참새에게

참새야! 내 밥 먹지마 그리고 내 밥 먹지마

우리가 못 먹게 하니까 내 밥 먹지마 그리고 다들 못 먹지마 먹으면 안 된다

영서

참새에게

참새야! 이제 내 먹지마라조

그리고 참새야! 너는 어디에서 먹어 너는 허수아비가 앉아서

참새야! 이제 진짜 내 먹지마

영서

참새에게

다른 배 먹지 마라

다른 배 먹지 마

참새 드림

지아

참새에게

참새야! 내 먹지마

그리고 영민에게 배 먹지마

신영민

참새에게

참새야! 어디에서 먹지

참새야! 내 다 먹지 마라

조금 있으면 먹지마

현민

아이들 글 속에서는 참새도 되고, 참새도 되고 저마다 표현한 글들이 참 재미있다. 그래도 참새는 와서 먹고 이제 정말로 누런 쪽쟁이만 남았다. 아이들 함께 바구니로 참새를 잡아볼까 하다가 심한 것 같아 그만 두었다.

봄부터 아이들과 함께한 벼 기르기 과정을 기록해보았다. 하나의 작업을 꾸준히 기록하고 변화과정을 볼 수 있는 보육의 활동들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생태연못은 살얼음이 생길 때까지 그냥 놔 둘 예정이다. 올 겨울이 날씨가 춥다면 옥상에 작은 스케이트장을 만들어 볼 예정이다. 벽돌로 울타리를 치고 두꺼운 비닐을 깔 후 물을 부어두면 될 것 같다. 잘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힘은 들겠지만.... 일을 또 벌이는 군....

■ 일상적인 글쓰기 ■

지난 호에 소개한 대로 편지쓰기가 시작되면서 아이들에게 많은 편지를 받았는데 일일이 매번 답장을 해주지는 못했다. 참새에게 편지쓰기도 편지쓰기 활동의 하나였다. 다음은 연간으로 진행했던 일상적인 글쓰기 활동의 예들이다.

* 말풍선 만들기 *

8,9월에 그림책나들이를 하면서 내가 만든 그림책을 해보았다. 현암사의 [우리가 알아야 할 옛이야기100]에 나오는 작은 컷 그림들을 확대 복사하여 말풍선을 만들어 아이들에게 채워보라고 했다. 아이들이 너무 재미있어한다. 다음은 아이들이 채워넣은 말풍선이다.



영일새시—모라고 내방기가 지도 하다고

영일새시랑—새시 방기 쳐어 요 새시방기 맨새 자지도 해 요

가림새시—어이 내가 부끄러다구 요 내 내가 어가 부끄러다구

가림새시랑—어이 아줌마 부끄러나 이 아줌마 안볼래 그 아줌마가 부끄러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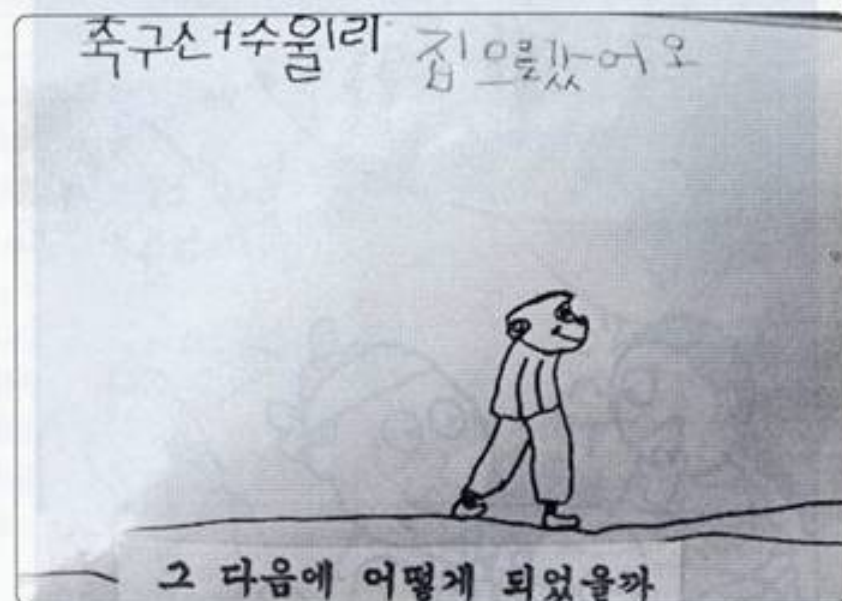


아이—너 무너무 재미있다 아버지 더해주세 요 아버지 사랑이 떨어터라 요

아버지—더 많이 해주 가

※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

존버닝햄과 앤서니브라운의 책 전시회가 있었다. 어린이집에서 2주간 두 사람의 책을 전시해 놓고, 미술관 관람을 했고, 책을 다 본 후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를 그려보고 말을 써 넣어 보도록 하였다.



터널..집에 오니 엄마가 밥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우리할아버지..아이가 할아버지 꿈을 꺼서요. 숲속으로..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며 나왔답니다. 윌리와 휴..사이좋게 놀았어요.

※ 그림에 이름 제목 날짜 쓰기

학기 초에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의 그림에 제목과 날짜를 못 써서, 일일이 써주거나 주제별로 모아 놓았다가 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아이들 스스로 날짜와 활동 제목 그리고 자기의 이름을 잘 쓴다.

※ 나뭇잎 탁본 후 가을편지 쓰기

아이들과 나뭇잎 프로젝트 하면서 나뭇잎에 물감을 묻혀 한지에 탁본하고 가을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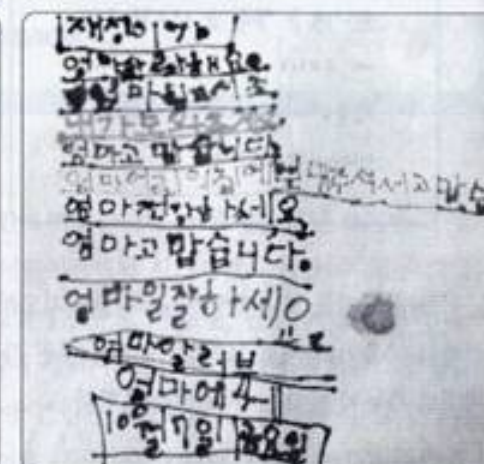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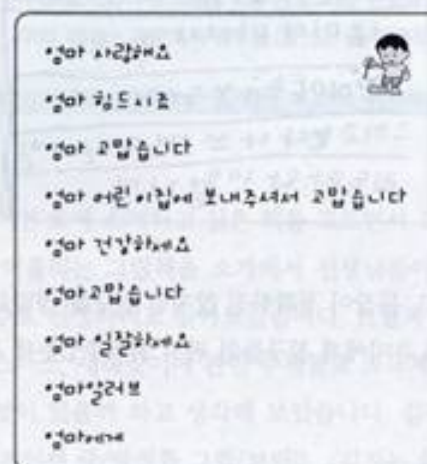
교사- (아외수업 가기로 했는데 비가 왔다) 이런 날 아외수업 대신 무엇 할까요?

아이들-라고요.

교사-라고는 알겠다고 했는데..

아이들-편지 쓴다고 했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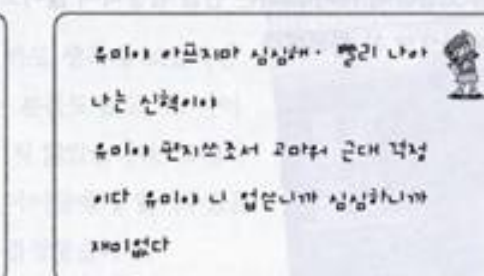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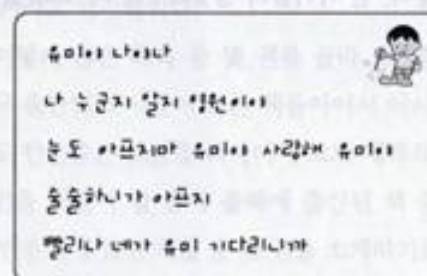
재성이가 엄마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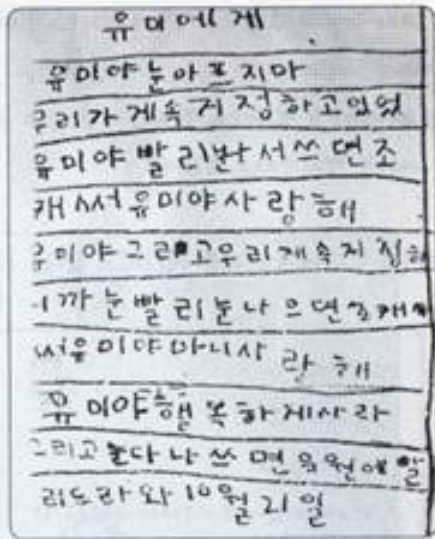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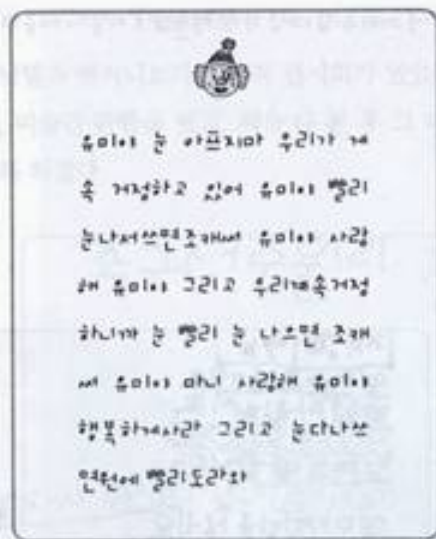


※ 병원에 입원한 친구한테 편지 쓰기

한 아이가 감기바이러스로 입원을 했다. 그날 당직이 끝나고 병문안을 갈 예정인데 편지를 써 주면 가져다 주겠다고 했다. 아이들은 유미가 어디가 아픈지 알고 있었고 병원에 입원했다니까 수술한 줄로 알고 있었나 보다.

아래는 아이들이 유미에게 쓴 편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아이들의 편지를 보면 받침이 간혹 틀리기도하고, 문장이 정확하진 않지만 친구를 정말로 걱정하는 마음이 그대로 녹아있는 있다. 병원 가서 유미에게 친구들의 편지 읽어주었는데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유미 행복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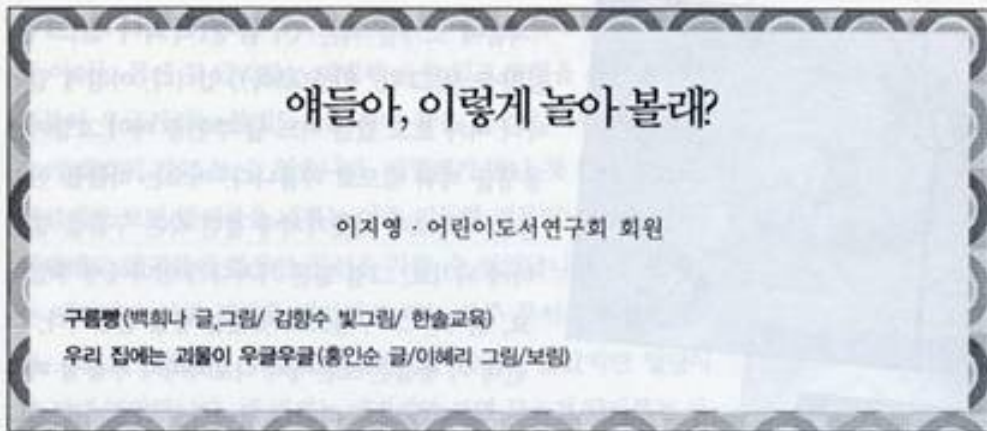
이번 호에는 일 년간 지속적으로 진행했던 일상적인 글쓰기와 생태연못 활동에 대한 것을 정리해보았다.

어떤 활동을 해도 누구나 다 똑같이 느끼고 감동할 수는 없다. 나는 아마도 올해 처음 취학 전 아동을 맡게 되어 더욱 일상적인 활동 속에서 더 많은 감동을 받았는지도 모른다.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아이들의 글과 생활을 본다.

기록하고, 사진으로 남기고, 작품을 정리하고, 그래서 해마다 내가 맡은 반은 사진도 많고, 일지에 기록할 것도, 파일로 정리해 놓은 것도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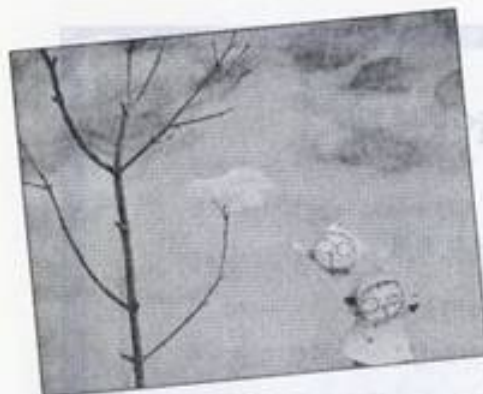
부모님들이 내가 느끼는 만큼 감동하지 않아도 좋다. 난 아이들의 성장과정을 다 보고 있다는 것만으로 참 행복하다.



이번 호에 소개하고 싶은 책을 고르면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는 지난 호처럼 그 절기에 어울리는 그림책을 소개해서 선생님들이 어린이집에서 시기적절하게 볼 수 있는 그림책 위주로 선정하려고 찾아보았습니다. 11월과 12월에는 주로 겨울(눈, 김장, 계절의 변화)과 크리스마스, 새해맞이에 관한 주제들로 교육계획이 세워지고 있으니 여기에 적절한 그림책들은 무엇이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장에 관련된 책으로는 <오늘은 우리 집 김장하는 날(채인선 글/방정화 그림/보림)>, <김치는 싫어요 · (최신양 글/나애경 그림/보림)> 등을 꼽을 수 있고요, 겨울에 관련된 책으로는 <우리끼리 가지(윤구병 글/이태수 그림/보리)>, <털장갑(젠 브렛 글,그림/문학동네어린이)>, <엄마마중(이태준 글/김동성 그림/소년한길)>, <장갑(에우게니 M. 라쵸프/한림)> 등을 읽어보면 좋을 듯해요. 크리스마스에 관한 그림책은 워낙 많지요. 저는 그중에서 <크리스마스 선물(안느 구트방 글/게오르그 할렌스레벤 그림/비룡소)>, <크리스마스 선물(존 버닝햄 글,그림/시공주니어)>, <신기요 장수 아이들의 멋진 크리스마스(루스 쇼어 글/바버라 쿠니 그림/시공주니어)>, <크리스마스 파티(가브리엘 벵 상 글,그림/시공주니어)> 등을 같이 보면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목록 중 몇 권을 골라 소개할 까도 생각해 보았지만 모두 출간되고 시간이 흐른 책들이어서 아시는 분들도 많고, 또 아이들도 한번쯤은 보았을 책이어서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되풀이 할 끝에 올해에 출간된 책 중 아이들에게 읽어주었을 때 반응이 좋았던 책들 중 몇 권을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처음에 소개할 책은 <구름빵(백희나 글, 그림/김향수 빛그림/한솔교육)>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니 비가 오고 있던 어느 날 주인공 아이 고양이는 동생을 깨워 밖으로 나옵니다. 비오는 하늘을 한참 동안 쳐다보다 나뭇가지에 걸린 작은 구름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걸 얼른 가져다가 엄마에게 주었어요. 엄마는 그 구름으로 맛있는 빵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 빵들은 오븐에서 나오자마자 두둥실 떠올랐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름빵을 먹은 아이 고양이들도 떠오르게 됩니다.



아이 고양이들은 아침밥을 먹지 못하고 출근한 아빠에게 빵을 가져다 드리기로 합니다. 콩나물 시루같은 버스에 타고 있던 아빠도 구름빵을 먹자 몸이 붕하고 떠올라 하늘을 날아 회사로 갑니다. 덕분에 직장도 면하게 되지요. 집으로 돌아온 아이 고양이들은 지붕에 앉아 맛있는 구름빵을 또 먹습니다.

집안의 사물들과 고양이 가족을 입체물로 표현하고 다른 배경이 되는 부분은 그림으로 표현한 반입체 그림책입니다. 입체로 표현 그림

책들은 공간감을 살릴 수 있는 장점이 있는가 하면 표정 표현의 한계이나 정지된 느낌 등으로 인해 재미가 반감되는 단점이 있어서 많은 책이 출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작가와 작품의 수가 한정되어 있지요. 이 책은 작가가 입체물과 그림으로 표현되는 부분을 적절히 조화시켜 놓았고 또 작품이 완성된 후 사진을 한꺼번에 찍는 게 아니라 장면이 완성되는 중간 중간에 사진작가가 동참해서 사진으로 표현해서 완성도를 높여 움직임도 잘 살아있습니다.

구름이 빵이 되고 그 빵을 먹은 사람이 하늘로 날아오른다는 발상이 참 재미있습니다. 아이들도 그 점에 흥분하고 자기도 구름빵을 먹어보았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입체 그림책이어서 구름과 빵의 보드랍고 푹신푹신한 촉감이 잘 살아있고 가족간의 따뜻한 애정을 잘 표현한 점이 돋보이는 책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우리 집에는 괴물이 우글우글(홍인순 글/이혜리 그림/보림)>입니다. 속표지 속 가



족그림에 나타난 '우리 가족'은 엄마, 아빠, 나, 동생입니다. 어느 날 아이는 몸에 착 달라붙는 에벌레 옷을 입고 모험을 시작합니다. 괴물이 우글거리는 불빛도시를 지나 작은 숲으로 가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놀 수 있습니다. 에벌레가 만나 첫 번째 괴물은 에벌레만 보면 방귀불을 내뿜는 아주 지독한 괴물입니다. 우리의 에벌레도 방귀불에 한동안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에벌레만 보면 껌질을 벗기려고 하는 아주 무서운 괴물입니다. 우리의 에벌레는 다행히 껌질이 벗겨지지는 않았지만 엉덩이를 세대 맛았습니다. 세 번째는 에벌레만 보면 무조건 달라붙는 아주 끈찍한 괴물로 놀다 지쳐 잠들기 전에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 켄드기 괴물입니다. 우리의 에벌레도 켄드리 괴물을 껴안고 괴물이 지쳐 떨어질 때까지 놀아주었습니다. 드디어 작은 숲에 도착해서 수정구슬, 변신보자기, 마법딱지를 가지고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리고는 다시 보물들을 숨겨두고 돌아와 잠이 듭니다. 아이의 이름이 무엇인지는 마지막 장에서 확인해 보세요.



세 명의 괴물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책을 읽지 않아도 알 수 있으시죠. 집안 식구 누구에게도 방해 받지 않고 자기가 숨겨놓은 소중한 보물 장난감으로 실컷 놀고 싶은 아이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괴물들의 특성은 아이가 가족 구성원들에게 느끼는 감정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피카소의 아비뇽의 처녀들처럼 괴물들과 화면의 분할을 앞에서 본 형태, 옆에서 본 형태, 뒤에서 본 형태를 뒤 섞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색연필과 펜으로 표현된 선들이 모여 이루어진 그림들은 어른들과 다른 아이만의 시각을 느끼게 합니다.

올해에는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 아이의 마음을 달래주는 그림책이 많이 눈에 띕니다. 여기에 소개하지 않았지만 <엄마 옷이 더 예뻐!(황유리 글, 그림/김벗어린이)>, 천하무적 공무동력기(김동수, 박혜준 지음/보림), <우리는 별거숭이 화가(문승연 글/이수지 그림/돌베개어린이)>, <개구쟁이 기러기(이억배 글, 그림/사계절)> 등이 꼽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창작 그림책이 많이 발전했다고 하지만 지적되는 바가 아이들의 놀이와 아이들의 일상을 담아내는 그림책, 아이들의 정서가 살아있는 그림책이 적다는 거였습니다. 어른들의 관념속에만 존재하는 아이가 아니라 선생님들이 매일 만나시는 바로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림책, 그 아이들이 함께 뛰놀며 깔깔 웃을 수 있는 그림책, 그 아이들이 위로받을 수 있는 그림책을 많이 만나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읽은 가을 그림책 두 권

고영미 · 회원

이 글은 지난 호 [좋은 그림책 소개] 코너에서 소개된 그림책을 아이들과 함께 읽고 쓴 글입니다.

아기곰의 가을 나들이

가을이구나! 가을에는 먹을 것이 참 많은데 산속에 사는 곰들은 무얼 먹을까? 어디 한번 볼까? 도서관에 비치해두기만 하던 그림책을 펼치자 아이들이 물려든다.

그렇게 시끄럽더니 그림책을 읽어주면 정말 너무도 조용하다.

울긋불긋 가을 산을 그림책에서 보고 아이들이 가을인걸 알까?

그림책 속 그림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건 목판으로 인쇄해서인가봐, 색도 몇 가지 없는 것 같은데 너무 잘 보여, 그림이 뛰어 나올 것 같다니까!

머루를 보며 아이들이 포도란다, 머루라고 얘기해 줘도 머루는 잘 모르니깐, 포도인줄 알면 어떨까, 연어라는 생선은 어떤 맛일까? 먹어 본 적은 있는 건가? 본 적 없다는 아이들, 봤다고 우기는 아이들....

곰이 먹는 걸 우리도 먹을 수 있어요? 수리산에도 곰 살아요? 아이들의 질문이 끝이 없다.

어설프지만 답변을 해주니 한 아이가 말한다, 동물원에 갈 때 포도 가져가서 곰한테 줘야지! 나도 나도, 나도 곰처럼 물고기 큰 거 잡고 싶다, 우리 아빠는 물고기 못 잡는데...

곰이 먹은 물고기가 비행기가 되서 하늘을 날아간다고 말한 헤민이는 천재인가보다.

아침만 되면 곰 책 읽어달라는 영진이에게 글을 아는 노성이가 말한다, 내가 읽어 줄게!

내 흉내를 제법 내면서 읽어준다, 듣는 영진이 표정이 내가 읽어 줄때보다 더 즐거워 보인다, 노성아 고마워.



[바쁘다 바빠]

고추 정말 많지! 난 고추 좋아 김치도 매워, 김치는 고추로 만든 거야.

이 그림책의 결정판은 고추 말리기 인가보다, 아이들이 고추 널려있는 그림을 가장 좋아한다, 붉은 고추가 눈에 확 들어 오는가보다.

바쁘다 바빠 라는 말이 실감나게 숨가쁘게 읽어 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안된다, 그림속 볼 것 이 너무 많아서 여기 저기 보려면 책장이 천천히 넘어가니까.

모르는 것도 많을 텐데 그냥 넘어가는 건지 질문이 별로 없고 서로 경험 있는 아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꽃감 먹었던 이야기, 고구마 캔 이야기, 벼가 출렁대던 논 이야기, 밤 줘던 이야기.....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은 제목이 우습단다, 뭐가 웃겨? 라고 물으니 그냥 웃긴다는데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다, 다시 한번 천천히 훑다 보더니 "그림책 속 엄마는 엄마 같은데 아빠는 꼭 외할아버지 같아"란다, 어디 하며 보니 정말 친정아버지와 비슷하다, 얼마 전 3만원 주고 그린산 칼라 초상화가 거실에 걸려 있는데 정말 비슷하다, 한참을 웃었다.

친정 엄마도 인정 하신다, 그림책이 주는 즐거움이 가지 가지다, 안 먹어도 배부르고 가만히 앉아서 봐도 몸이 들쭉일 정도로 분주하다.

가을은 바쁘다, 교실 한쪽은 가을을 흠뻑 느낄 정도로 낙엽이며 씨앗들, 과일껍질로 그득하다, 어제는 아이들과 농장에서 고구마를 줬다, 내일은 고구마 찌서 먹어야지, 올해는 한번 말려서 겨울에 먹어보면 어떨까? 아이들도 먹을까?

우리에게도 겨울 먹거리가 있던 것을 감사하며 내일도 바쁘다 바빠를 읽어 주어야겠다.

더 재미 있겠지?



아이들과 함께 웃음을 전하는 “해피바이러스”

한종례 · 부천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 교사

◆ 해피 바이러스 활동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

“우리는 혼자서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은 수많은 끈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이 인정의 끈을 따라 우리의 행동은 원인을 제공하고 그 결과는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 옵니다.” -허만 멜빌

부천근로복지공단어린이집에는 160여명의 영·유아가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많은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곳으로 올해로 4년차를 맞고 있습니다. 매년 새로운 프로그램과 활동을 구성하면서 어린이집 내에서 뿐 아니라 부천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연계하여 보다 활동을 심화시킬 수 있었고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항상 성심껏 도움을 주시는 주변의 이웃에게 늘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이 이웃이 있기에 우리 아이들은 어린이집에서 경험할 수 없는 다양한 것들을 보고 배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면서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이 느낌을 그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 하고 그 감사함을 서로 주고 받으며 웃을 수 있는 건강한 어린이와 이웃이 될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행복을 모두가 느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모두가 행복한 세상! 작은 생각과 실천이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바로 「해피 바이러스」활동의 시작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른들의 도움을 받으며 자라듯이 지금의 이 아이들도 어른이 되면 지금 도움 받았던 것을 기억하고 미래의 아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어른들이 되겠지요..

이렇게 어른들로부터 받기만 한 아이들이지만 어린이니까.... 항상 어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내가 받은 것에 대한 고마움을 알고 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작은 표현이지만 어른들을 웃음 짓게 할 수 있는 “해피바이러스” 활동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해피바이러스 활동은 우리 지역에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현장견학을 다녀온 후 그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 그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만 4, 5세가 했던 해피바이러스 활동을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 소방관 아저씨들께 보람을 느끼게 했던 우리들의 응원 메시지

- 지난 3월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사전에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어요.
- 모둠별로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소방대피훈련법을 알려주신 부천소방관 아저씨들이 제일 많이 도와주었다는 의견이 나왔어요.



▲ 모듬별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에요

① 그런 고마운 분들에게 우리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 C: 불을 조심하더라고요.
C: 길에 빠지는 걸 조심해요.
T: 길에 빠지는 걸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C: 전화를 해요.
C: 우리는 전화를 잘 모르잖아.
C: 그림 편지를 써요.

② 편지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좋을지 자유롭게 이야기해 보았어요.

- C: 멋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C: 저도 소방관이 되어서 어린이집 친구들을 도와줄 거라고 말했거든요.
C: 항상 우리끼리 나지 않게 불을 가만히 고맙다고 써요.
C: 어린이집에 또 오고 싶다고 전해요.

③ 이야기 나누는 것을 토대로 각각 소방관 아저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썼어요.

④ 편지를 다 쓴 후 대그룹으로 모여 자신이 쓴 편지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았어요.



▲ 친구들에게 소방관 아저씨에게 쓴 감사의 편지를 소개하는 모습이에요.

⑤ 우편으로 보내드린 편지를 받아보신 소방관 아저씨들께서는 “너희들의 편지가 아저씨들이 일하는데 너무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앞으로 소방서 견학도 오면 잘 설명해주신다고 하셔서 나중에 꼭 견학을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 아름답고 좋은 소리의 음악!!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 해피바이러스의 경험이 있는 유아들이라 음악회를 다녀온 뒤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연주자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하는 유아들의 의견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아들과 함께 어떤 내용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 좋을지 이야기에 보았습니다.



▲ 부천필하모닉 음악회 공연 관람해요.



▲ 모듬별로 모여서 편지를 썼어요.

① 악기 연주를 들려주신 고마운 분들께 어떻게 마음을 전하면 좋을지 알아보아요.

C: 새로운 악기를 소개해 주셨으니 감사하다고 말해요.

C: 재미있다고 있는 악기를 그림으로 그려서 선물해요.

C: 우리가 그때 음악을 듣고 신났다고 전해주세요.

C: 다음에 또 음악을 듣고 싶다고 말해주세요.

② 이야기 나누는 것을 토대로 각각 악기연주자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써보고, 글을 쓸 줄 아는 유아들은 글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지만 글로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유아들은 자신이 본 장면이나 악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표현하도록 하였어요.

③ 편지를 다 쓴 후 대그룹으로 모여 자신이 쓴 편지를 친구들에게 소개해 보아요.



▲ 친구들에게 연주자 분들께 쓴 감사의 편지를 소개해 보아요.

④ 우리 아이들의 편지를 받아본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연주자 분께서는 앞으로 우리처럼 아이들도 자주 듣고 감상할 수 있는 연주를 많이 해주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 도당공원은 우리 모두의 것이다.

우리 유아반은 평소에도 도당공원으로 산책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당공원은 갈 때마다 아름답고 깨끗하게 가꾸어져 있어요. 유아들과 함께 도당공원이 항상 깨끗하고 아름다운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도당공원을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도당공원을 아름답게 가꾸어주시는 분들이 있어 우리가 산책을 갈 때마다 즐겁고 아름다운 자연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했어요.

만 4세에서는 신학기에는 글씨를 알고 있는 유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그림편지를 써서 보내자는 이야기가 나왔지요. 그래서 유아들과 함께 그림편지를 써서 다음 산책시 직접 전달해 드리기로 하였어요.



▲ 유아들이 쓴 그림 편지예요.

▶ 도당공원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 직접 방문하여 전달드려요



지금까지 이곳에 산책을 오면서 이런 편지를 전해준 친구들은 우리들 뿐이었다면서 너무 기뻐하시고 자주 산책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요. 그리고 아름답게 가꾸어진 도당공원을 우리도 함께 가꾼다는 생각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 이제부터 물을 아껴 쓸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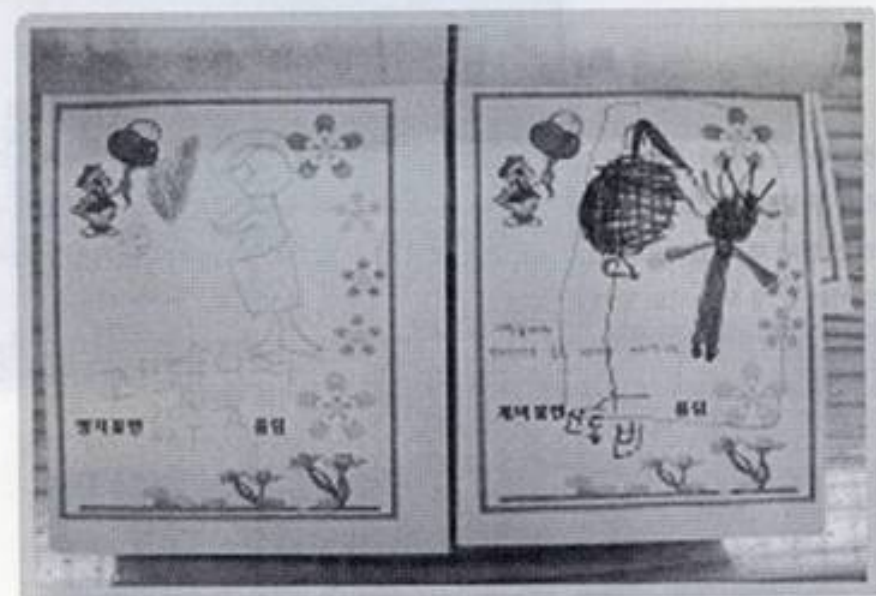
만 4세반에서는 6월에 '물'이라는 주제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물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부천지역에 있는 물박물관 견학을 하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물의 순환 과정과 물의 쓰임에 대해 알아보고 물의 소중함에 대해 알 수 있었지요. 물이 어떤 과정을 거쳐 우리에게 까지 오게 되는지도 알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렇게 물 박물관 견학을 다녀온 후 물박물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 수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림편지를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 물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해보아요.



▲ 물 박물관 견학을 다녀왔어요.



▲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림 편지예요.

▲ 전화 통화 후 우편으로 보내드려요.

유아들과 함께 쓴 그림편지를 보내기 위해서 물 박물관에 전화를 드렸어요. “해피 바이러스” 활동의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고 유아들이 쓴 그림편지를 보내고자 주소와 담당자를 물어봤을 때 “지금까지 그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온 적이 없는데 너무 기뻐하다.”는 칭찬을 해주시면서 “너무 기분이 좋고 보람을 느낀다.”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음에도 또 견학을 오면 그때는 얼굴 보며 인사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제빵사 아저씨! 정말 대단해요—

우리 부천지역에는 우리가 견학을 가고자 한다면 얼마든지 협조해 주는 기관이나 상점들이 많이 있어요. ‘빵’ 주제를 진행하면서 제과점 견학을 계획하게 되었지요. 제과점 견학은 평소에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의 간식을 제공하는 제과점으로 견학을 하게 되었어요. 그 곳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쿠키 만들기, 케이크 만들기, 생크림 만들기 등 직접 경험해 보고 구경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지요. 제과점 견학을 다녀온 후 우리는 제빵사 아저씨가 눈 깜짝할 사이에 만들어 낸 케이크를 보며 아저씨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빵사 아저씨가 계셔서 우리가 맛있는 빵을 먹게 된다는 것도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로 하였고, 아이들이 쓴 그림편지는 제과점 아저씨께서 어린이집에 방문하셨을 때 직접 전달해 드리기로 하였다.



▲ 1021년 견학(1021년에 잇는 빵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가 직접 쿠키도 만들어 보았어요.)

▲ 10월 1일 견학할 다녀온 후 재향사 아저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그림편지를 써 보았어요.



▲ 어린이집에 직접 방문하심

재향사 아저씨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렸어요.



우리 아이들의 정성이 담긴 그림편지를 받아보신 재향사 아저씨께서 함박웃음을 보이시고 다음에 또 필요하면 견학오라고 하셨고, 그때 또 견학을 오게 되면 맛있는 빵과 케익 만들기를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 고마운 마음을 전할 줄 아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

견학을 다녀온 후 각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된 우리 아이들은 부천 지역에 아주 많은 곳에서 우리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언제나 견학을 다녀온 후에는 시키지 않아도 "우리 그림편지에 감사하다고 편지 써요!"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러한 우리 아이들의 편지를 받아보신 분들은 너무 기뻐한다는 칭찬과 함께 "고마운 마음을 전할 줄 아는 너희들이 정말 자랑스럽구나."라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우리 아이들의 서툰 편지글과 그림이 너무 예쁘고 웃음짓게 한다는 말씀도 해주셨어요. "해피 바이러스" 활동을 하는 취지에 대해서 아시고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셨고 언제나 우리 아이들의 견학이 필요하다면 항상 협조해 주시겠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해피바이러스" 활동을 시작한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동안 지나쳤을 작은 것들이 이제는 그냥 지나쳐지지 않은 중요한 것들이 되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으며, 우리 지역사회에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곳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언제나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좋은 활동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들의 참여에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도 보람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이들은 부천 지역이나 다른 지역으로 견학을 다녀온 후에는 감사의 편지를 보내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로 아이들에게 삶의 환희를!

-여덟번째-

고정미 · 회원/한국보육교사회 전통교육연구팀원
아이들과 함께 풍물을 이어가는 사람들 '풍물깨비' 연구원/유아국악강사

이번 호에서는 '수'나 '글'을 익히면서 불렀던 노래와 놀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아이들 옛 노래와 놀이'는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글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는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으로 지켜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함께 날마다 행복한 날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체적인 상황은 필요치 않습니다. 마주보고 앉아서도 할 수 있고, 손을 잡고 걸어가면서도 할 수 있고, 누워서도 할 수 있고, 차를 타고 가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한 줄씩 번갈아 부릅니다.

가이가 기다가 (어른)

가이가 거렁애 (아이)

고이고 고기 잡아 (어른)

구이구 국물 끓여 (아이)

나이나 나도 먹고 (어른)

나이너 나도 먹고 (아이)

다이다 다 먹었다 (어른)

다이어 더 다고 (아이)

어이어 얹다

(어른) (참배)



마지막에 "얹다!"는 함께 합니다. 얼굴을 마주 보며 외치면 재미있습니다.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어른이 먼저 시작을 해야 마지막 줄의 "어이어"에 분위기를 잡아갈 수 있습니다.

옛날에

고바우 영감어

고개를 넘다가

고개를 다쳐서

고약할 뻔했더니

고대로 냐다

"고고고자로 시작하는 말~"

"고양어 고무신 고등어 고무줄 고무깡 고무라~"

어렸을 적에 참 많이들 부르면서 놀았던 노래들이죠? "고고고"로 시작하는 말과는 반대로 끝나는 말로도 할 수 있습니다.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

"개나리 보따리 고사리 미나리 유리 청어리~"

아이 어르는 소리중의 하나였던 꼬부랑 할머니도 '꼬'자로 시작하는 말놀이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꼬부랑 할머니는 18개월쯤 되면 통오줌을 가리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위한 대변 가리기 훈련이었습니다. '꼬'자에 힘을 주면서~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치마를 입고

꼬부랑 땀기름 드리고

꼬부랑 지렁이를 잡고

꼬부랑 강아지를 데리고

꼬부랑 길로 기다가

꼬부랑 똥이 머리위



꼬부랑 나무에 올라가서
 꼬부랑 똥을 똥겨든
 꼬부랑 똥을 누니까
 꼬부랑 강아지가
 꼬부랑 똥을 낚음 먹어 버리니까
 꼬부랑 할머니가
 꼬부랑 지렁이로 먹 대려 주니까
 꼬부랑 강아지가

꼬부랑 똥똥 꼬부랑 똥똥

너 똥 먹고 천년 사나 내 똥 먹고 만년 살지

꼬부랑 똥똥 꼬부랑 똥똥 그러면서 달아났다 그러대

한 사람이 위의 내용처럼 꼬부랑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줘도 재미있지만, 한 사람이 꼬부랑 할머니가 어렸다는 이야기 설정만 해주고 그 다음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또 다음 사람이 이야기를 이어가는 방법도 재미있습니다.

간단한 이야기 구조를 갖고 있는 이야기의 내용들은, 아이들 잠을 재울 때에도 아이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달라고 조를 때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옛날에

콩나무하고 대나무하고 청나무가 살았는데

콩나무가 병든들 콩-뛰어

대나무가 대비늘 하나까

청나무가 청아라- 그랬대

나무노래가 생각이 나네요. 다들 알고 계시는 나무노래 또한 말놀이의 형식을 갖고 있는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람아 바람아 놀이를 하다가 아이들 네 명에서 다리를 엮으면서 한사람씩 '동서남북'이라는 방향을 가리켜주고 바람개비의 느낌을 갖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넷은 뭐게? 하면서 물었더니 아이들이 "동서남북이요~ 바람개비요~ 사각형이요~ 네모요~ 우리식구요~....."라고 대답하더라구요. 그래서 바람아 바람아 놀이가 끝난 후에 묻고 답하는 놀이를 계속했습니다.

하나는 뭐니?

나요- 해님이요- 달님이요-.....

둘은 뭐니?

적공이요- 텃가락이요-.....

셋은 뭐니?

손가락이요- 오징어 다리요- 쌍가락이요-.....

같은 물음에 아이들의 대답은 모두 다르고, 그 이유를 물으면서 아이들의 생각을 듣다보면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옛 말에 숨이 길면 오래 산다고 하지요.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와 함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놀이가 있다고 하니까 진짜로 아이들 눈이 더 반짝반짝 해 지더라구요. 별을 열개 다 딸 때까지 숨을 참아야해~ 그리고 씹씹하게 노래를 부르면서 별을 열개 다 따는 거야~ 숨을 많이 들어 마신 다음에 조금씩 내쉬어야해~

(내손바닥을 한번치고 오른쪽 옆에 앉은 친구의 왼손바닥을 한번 치고를 반복하면서 부릅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점점 빠르게 하다가 맨 마지막에 다 땀! 하면서 고함을 지릅니다. 얼굴이 벌개지면서 다 땀! 하고 나서는 얼마나 신이 나는지~)

자 다함께 불러봅시다!

별 하나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별 둘이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별 셋이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별 넷이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별 다섯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별 여섯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별 일곱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별 여덟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별 아홉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별 열이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별 열이 떠다가 탕자나무 곁고 맴고 찌고
 다 떴다

이 별 헤는 노래 중에 아이들 재우는 노래로 불릴만한 노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졸려서 눈을 감았다 다시 조금 떴다가를 반복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별 헤는 노래!

별 하나 콩콩 별 하나 색색
 별 둘 콩콩 별 둘 색색
 별 셋 콩콩 별 셋 색색
 별 넷 콩콩 별 넷 색색

졸려서 눈을 깜박거리려는 아이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그려지는 아름다운 말들이지요?

이런 아름다운 말들을 아이들과 함께 재미있는 놀이로써, 아이들의 삶 속에 녹아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의 문제행동을 어떻게 지도해야 하는가?

윤선영 · 본회 전문위원, 건양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함께 생각해 봅시다'에 올라온 보육교사들의 고민은 본회 홈페이지 [보육활동상당]에 올려진 글들을 정리하여, 함께 생각해 볼 지점에 대해 윤선영 선생님께서 기고해 주시는 글입니다. 상담내용에 있는 이름은 모두 가명으로 하였습니다.

사례 **

저희 반은 6, 7세 통합반입니다. 올 초 7세 졸업생이 많아서 6세 아동들이 새로 많이 들어왔습니다. 새로 들어온 아이들은 모두 시설에 오래 다녀서 처음엔 적응도 잘하고 씩씩해서 좋았는데 아이들이 도무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 한둘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들을 밀고, 때리고, 높은데서 뛰어내리는 등 상식 밖의 일을 저지릅니다. 처음엔 상냥한 말로 타이르거나 타임아웃을 시키던 저는 두 달이 지나도 변화가 전혀 없어서 화를 내기도 하고 옥박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있나구요? 없지요. 그래서 타이르고 타임아웃 시키는 일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말을 안 듣고 매일 다른 아이들을 때리고 기존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새로 온 아이들에게 매일 맞는다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고 항의를 하고 저도 통제가 잘 안 되는 아이들 때문에 머리가 멍하고 다른 아이가 맞아서 코피라도 흘리며 가는 날은 제 교사의 자질을 의심하면서 집에 돌아가게 되니 개인적으로도 우울해지네요.

2003년5월에

아이들의 행동은 자기 자신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기 아이들은 아직 자기 자신에 대하여 객관화하거나 자신의 상태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그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곧 그들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워낙 유아들은 본질적이기 때문에 겉 다르고 속 다른 행동은 아직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만을 주시하고 아이들을 판단하여 야단을 친다면, 우리는 자칫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거부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꾸중을 반복적으로 받게 되면 면역성이 생겨서

큰 효과도 보기 어렵습니다. 제가 현장 연구 작업을 할 때 보면 거의 모든 선생님들이 잘못된 행동에 대하여 야단을 치거나, 타임아웃을 하거나, 격리시키거나, 벌을 주는 모든 방법들이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다시 또 같은 방법으로 아이들을 대해야만 하는지, 지도 선생님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배운 대로 상냥하고 부드럽게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도하려고 하지만, 잘 먹히지도 않고, 무거운 하루 일과로 마음과 몸은 바쁘고,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고, 이 아이 저 아이 신경도 써야 하고, 다음 주 계획안도 작성해야 아이들 가방에 넣어줄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것도 한도가 있겠지요. 그래서 결국은 좋지 않다고 하는 벌도 주게 되고, 소리도 질러지고, 미운 감정도 생기고, 결국 퇴근길에 후회하게 될 지라도 말입니다. 보육교사도 부모님이나 다름없이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감정 스스로 통제가 안 될 때도 많지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입니까? 그래도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어야 하는 전문인들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왜 이 곳에 존재합니까? 바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아야겠지요. 도대체 그런 행동 뒤에는 무엇이 숨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교사인 내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다면 한 번 그런 행동을 잘 관찰하여 그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살펴 볼 필요가 있겠지요.

거칠고 공격적이고 다른 아이들을(아울러 교사도) 괴롭히는 행동들이 에너지가 넘쳐서인지, 단순한 모방인지, 욕구불만에서인지, 이전의 상처 때문에 마음이 삐뚤어졌는지, 자기보호를 위한 수단으로 난폭한 행동을 보이는 것인지 잘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부모 면담을 통해 그 아이의 지금까지의 생활에 대한 정보도 수집하고, 가정환경이나 그 아이만의 기질과 생활습관 등 많은 것을 알아본다면 아마 그 중 어느 것에 더 가까운지 조금은 짐작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저 TV의 만화영화에서 나오는 장면이나 드라마 같은 대중매체에서 본 장면을 따라하는 것이라면 그러한 문화를 자주 접하는 생활습관에 조금 변화를 주는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때로는 친구들과 어떻게 지내야 하는지 잘 몰라서 사회적 행동기술 부족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땐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돕는 즐거움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생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하겠지요. 에너지가 넘치는 아이는 기운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무거운 가구나 놀이감을 옮길 때 기여할 수 있게 하고, 바깥놀이 때

발을 갈거나 집짓기 놀이를 하면서 기운을 쓸 수 있도록 하면 좋겠지요. 어떤 학자는 그런 아이에게 운동을 시키라고 권하지만 저는 반대입니다. 운동은 유아기 어린이들에게 아직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운동이란 인위적인 규칙으로 짜여진 경기(예: 축구)나 폭력적인 행동이 담긴 행동의 조직들(예: 태권도 등)을 의미합니다. 유아기 어린이들은 산책을 하거나 자연 속에서 자연과 함께 어우러져 탐색하며 놀이를 하는 것이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물놀이는 좋지만 수영을 가르치는 것은 아직 어울리지 않다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많은 아이의 경우 친구관계가 좋아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문제는 감정 기복이 심하게 폭발하는 경우 친구들에게 소외되기가 쉬워 생활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욕구불만의 경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기로 합시다.

욕구불만은 대개 사랑, 관심, 성인의 올바른 지도에 대한 것이 대부분입니다. 사랑과 관심을 받지 못하여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자 과잉행동을 하는 경우 교사의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이가 요구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과 관심은 그 아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아이의 행동에 대하여 “네가 무엇인가 말하고 싶구나” 라는 마음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아이가 소외감이 들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금방 좋아지지는 않겠지만 이 경우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성인의 올바른 지도에 대한 욕구불만이란 부모가 과잉보호, 허용적인 또는 방임적인 양육태도를 보였을 때를 의미합니다. 본래 아이들은 성인에게 근원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성인들로부터 어떤 행동을 얼마만큼 해야 하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일 성인 중 아무도 안 알려 준다면 아이는 도대체 자신의 행동을 어디에서 멈추어야 하는지 잘 몰라 혼란스러워 하고, 그것을 알기 위한 실험으로 극단적인 행동까지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제한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제한선은 대안을 제시하면서 두어야 아이들의 좌절감도 줄이고 행동을 절제하는 방법을 좀 더 안정감 있게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무조건 뛰지 말라고 하기보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제안하면서 이 장소는 뛰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더 안정감 있다는 뜻이지요.

두려움, 혼란스러움, 불안함 등의 감정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과격한 행동을 보인다면 더 더욱 그 아이의 행동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소하는 방법마저 금지시킨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자신의 감정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럴 땐 “나는 너의 내면상태를 이해하고 있다”는 마음으로 아이를 대하되, 즉각적인 벌이나 꾸짖음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대신 그 아이의 불안한 마음과 손상된 내면을 치유할 수 있는 심미적 상황을 평소에 더 많이 조성해 주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작놀이, 전래동화, 동극 같은 활



동을 주의 깊게 활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는 동작, 인간의 삶이 담긴 이야기, 태양과 꽃이 되어 보는 극놀이 등은 아이로 하여금 동일시를 통해 의미 있는 행동과 상상으로 치유하는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요즈음은 특히 주의력 결핍·과잉행동장애(ADHD: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아동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보다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건강한 생활습관을 길러 주는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반대 행동을 강요하는 것은 아이를 더욱 힘들게 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산만하다 하여 조용한 활동을 더 많이 강요하거나(예: 바둑), 과잉행동을 많이 한다하여 행동을 절제시키는 것은, 조용한 상태를 못 견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움직여야 하는 일종의 병을 근본적으로 치유해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건강한 행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생활에 더 역점을 두어야겠지요. 예를 들어 TV나 컴퓨터 게임 같이 기계에 의존한 수동적인 활동으로 보내는 시간을 줄이고,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자기행동을 많이 할 수 있는 놀이로 시간을 보내는 생활을 가꾸어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짜여진 활동 보다는 비구조적인 활동으로 그 아이가 잘 할 수 있는 활동과 연결하여 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생활에 너무 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며, 매일 밤 일정한 시간에 잠을 재우고 잠들기 전에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장가를 불러 주는 등의 잠재우는 의식은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생활이 정돈되어 행동도 정돈될 수 있게 합니다. 이러한 일은 반드시 부모와 함께 노력해야겠지요.

그러나 어떠한 이유에서이든 간에 한결같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이와의 개별적인 관계를 발달시키는 일입니다. 인간은 인간으로 태어났기에 인간이라는 환경과 인간이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세상을 배우고 삶을 배우며 삶에 대한 즐거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이와의 관계를 발달시킨다 함은 아이를 관찰하고 이해하고 수용하며, 자유롭게 놓아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은 한 번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발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성인)을 사랑하게 될 때에는 한 눈에 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이에 대한 사랑은 그렇게 저절로 전기가 통하듯 생기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힘은 교사를 더욱 강하게 해 주고, 아이에게는 더욱 자신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해 줍니다.

그러면 분명 이쯤에서 선생님들은 반박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지금 이 일로도 벅찬데 그런 것 까지 어떻게 다 신경을 쓰느냐고. 특히 지금의 이 활동을 진행해야 하는 순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나 좀 더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러한 활동들이 모두 어린이들을 위한 것이어야 하지 성인을 위한 것이라면 모순이

겠지요. 만일 계획된 활동을 실행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아이들의 존재가 무시된 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을 다시 뒤집는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위한 생활이 되도록 새로 일과를 구성해야겠지요. 그러면 또 질문하실 겁니다. “그러면 다른 아이들은 그 아이들 때문에 희생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에게 좋은 것은 다른 “잘 잘 듣는” 아이들에게도 좋습니다. 오히려 “잘 잘 듣는” 아이들 중심의 생활이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이들을 희생시키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도 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지금 당장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는 행동이 나타났는데 근본적인 치유를 위해 그저 가만히 보고만 있으란 말입니까? 지금 그 아이가 친구를 때려서 코피가 났는데 그냥 내버려 두란 말입니까?”라고 또 반박하실겠지요. 자, 그러면 선생님 의도대로 타임아웃을 썼다고 해 봅시다. 다음에 그런 행동이 안 나타나리라고 장담할 수 없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타임아웃은 학령기의 큰 아동에게나 어울리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아들은 (좋은) 행위를 통해서 배우는 시기인데, 타임아웃은 그것과는 달리 거리감을 두고 제외시키는 것으로서, 건강한 행동을 유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차라리 그 순간 다른 행동을 하도록 제안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사는 끊임없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생각해 내야 합니다. 다른 행동을 제안한 것 자체가 이미 다른 아이들에게 “아, 조금 전 저 아이가 한 행동은 좋은 것이 못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주며, 좋지 않은 행동을 한 아이도 덜 수치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벌을 주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사에게 가장 쉽고 편한 방법이 가장 비교육적인 방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직업이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이런 주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별로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교사는 게으른 교사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사가 해야 할 일 중 가장 중요한 일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보다 사실은 아이들을 인간적으로 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발도르프 (유아)교육학에서는 아이에게 기대하는 행동을 교사가 먼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문제행동을 수정해야 하는 사람은 그 문제행동을 한 아이의 몫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뒤엎는 교육 방법이지요. 그런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교사가 진정 아이와 만나고자 한다면, 교사는 외적인 공간에서 아이와 함께 있다고 만나지는 것도 아니고, 아이를 붙들어서 놓고 이런 저런 상담을 하며 아이의 생각을 들어 본다고 만나는 것도 아니고, 한 시간 동안 아이만 바라본다고 만나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아이와 만나기를 원한다면 내가 하는 행위와 내가 먼저 만나야 합니다. 아까도 언급했지만, 유아기 아이들은 행위를 통해 세상을 만난다고 했습니다. 내 의식이 온전히 내 행위와 일치되어 있다면 그 속에 어느 새 아이가

들어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소위 "모범"이라고 하지요. 어떤 선생님은 동화의 이야기와 자신이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어린이들이 더욱 동화에 몰두하는 경험을 해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만일 교사가 "문제행동"을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바람직한 행동"을 더욱 많이 생각한다면 스스로 그 바람직한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와 만나 아이는 자연스럽게 "바람직한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이상적인 말들이지요. 저는 선생님들께 "이상적인 교사"가 되셔야 한다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만의 교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읽으신 글은 모두 남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선생님만의 교육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다면 무조건 새로운 방법으로 바꾸어야겠지요. 교사라는 직업은 힘들기만 한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매력 있는 직업입니다. 자신만의 교육을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내가 노력하는 만큼 나에게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집니다. 내가 노력하는 만큼 아이들도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똑 같은 아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 똑 같은 교사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방법도 똑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처방전과 같은 지도방법 즉, 정답이 있다면 얼마나 편리하겠습니까만은 "다행이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만일 정답이 있다면 교육은 정말 지루하기 짝이 없는 마치 공장에서 물건을 찍어내는 것과 같은 비인간적인 과정만 존재할 테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 지도방법은 단지 내 생각과 행동을 결정하는데 자극이 되거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아이를 위한 직접적인 영향력은 아직 없습니다. 진짜의 효력은 전적으로 교사에게 달려 있습니다. 교사가 그 아이의 "고유함"에 얼마나 다가갈 수 있는가에 따라 결과는 천차만별일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뿐 아이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은 스스로 발달해야 합니다.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이들로부터 찾고, 아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나와 그 아이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세상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창조적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은 "예술"입니다.



선봉어린이집 만1세반 아이들

서재림 · 회원

호칭과 관련하여

어느 날 날 보고 일영이 다정히 부른다.

일영 : 할머니!

교사 : 할머니 말고 엄마라고 그래

(아이들은 솔직해서 보이는 대로 말한다더니 내가 늙어 보이냐 보다. 어휴, 파마한 머리를 푸를까? 벌써 할머니라는 말을 듣다니...)

귀가시간 민석이를 데리러 중학교 1학년 형아가 왔다.

일영 : (민석이 형아를 보고) 하부지!

민석이 형 : (뭐라 하지 못하고 얼굴이 빨개짐)

교사 : 하부지 아니고 형아야

*나중에 안 것이지만 많은 영아들은 말을 배우는 과정에서 선생님의 사 발음을 잘 못하고 호으로 발음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니면 평소 자주 사용하는 호칭으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에! 뭐야

배변훈련기간 중에 더위가 일찍 시작한 올 해 6월 어느 날, 우리 반의 가장 어린 경재(11월생)가 유난히 땀을 많이 흘려 기저귀를 빼어냈습니다.

교사 : 아휴 이렇게 땀을 많이 흘리니 경재야, 땀띠 나겠다. 기저귀 빼자!

경재 : (기저귀를 뗀 상태에서 여기 저기 돌아다니다 방바닥에 오줌을 싸면서 본인도 많이 놀란 듯) 에! 뭐야

교사 : (까르륵 넘어가며) 경재가 싸 오줌이지. 뭐긴 뭐야

(이날 기저귀를 뗀 상태에서 3번의 쉬를 할 때 마다, "에! 뭐야"를 반복했습니다.)

꽃향기를 맡으며

어느 날 장미꽃을 교실에 갖다 놓았습니다.

교사: 애들아! 꽃향기 좀 맡아봐! 음... 향기 좋지. 음... 향기 좋다.

아이들: (교에 갖다 댄 향기를 맡으며 고개를 끄덕 끄덕) 향기 좋다.

(교실에 조화가 섞인 솜 꾸러미가 있었습니다.)

재웅: (조화 향기를 맡으며) 향기 좋다.

교사:



다시 보육교사를 시작하며

김영금 · 회원

보육이라는 일에 발을 담근 지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넘어가고 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현장의 보육교사로 일한 건 겨우 3년 정도...

건강과 결혼 그리고 임신과 출산 등의 이유로 긴 공백기를 보내는 동안 현장에서 다시 일해 보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지만 마음을 먹고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다.

머릿속으로만 고민하기를 수십 번, 보육정보센터의 구직란, 일간 정보지의 구직란을 보기만 하고 망설이기를 수십 번,

“그래 지금 다시 시작하지 않으면 보육교사로 일한다는 게 더 힘들어질지도 몰라” 하는 생각에 결국은 마음을 먹고 신문의 구직란을 뒤지며 내가 사는 집 가까운 민간 어린이집에 용기를 내어 직접 찾아갔다.

의외로 아이가 둘 딸린 유부녀라는 조건이 취업을 하는 데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았지만

하루 온종일 일하는 것에 비해 얼마 되지 않은 임금과 “아이들하고 지낼 자신 있으세요.”라는 원장의 말에 조금은 망설여지기도 했다.

내가 말을 받은 4세반, 이전 선생님은 아이들을 보다가 허리를 다쳐 그만 두게 되는 거라는 데,

“정말 내가 마음으로 원했던 만큼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렇게 보육교사를 다시 시작한지 5개월째, 처음 한 달은 왜 이리 시간이 더디 가는지 원... 하루가 일주일 같고 일주일이 한 달 같더니 아이들과 생활이 조금은 익숙해진 요즘은 하루하루가 금방 지나간다.

지금도 크게 달라지진 않았지만 처음에 가장 힘들었던 것은 어린이집 공간이 전체 아이들의 수에 비해 비좁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은데 웬지 커다란 틀에 끼여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전체 교사 수는 각반에 1명씩, 나를 포함해 모두 5명이다.



다들 각 반의 생활이 있고 교사들끼리 서로 이야기할 시간이 없어서 더 그랬을까.

이전에 일을 했을 때는 항상 교사 둘이서 파트너가 되어 일을 했었는데 혼자서 아이들 10명 (지금은 한명이 더 늘어서 11명)을 맡아서 보려니 조금은 벅차면서 답답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내가 보면서 노는 동안에도 싸워서 상처가 난다든가 혹은 다치지는 않을까. 항상 맘 졸이고 불안할 수밖에 없다.

원장선생님이 자리를 비울라 치면 항상 “애들 안 다치게 잘 돌보세요” 라는 말을 남긴다. 그게 어쩔 땐 무슨 주문처럼 들리기도 한다.

물론 아이들이 다치지 않게 안전하게 보는 것이 보육의 기본이지만 마치 최고인 것처럼 들리니 말이다.

처음 한 달간은 바깥에도 제대로 나가지 못하고 겨우 옥상에 올라가 노는 정도였지만 지금은 거의 매일 한번 정도는 어린이집 앞마당에 나가 뛰어논다. 물론 교사인 나는 아이들이 혹은 다치지는 않을까 하며 조금은 맘 졸여 있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특 트인 공간에서 하늘도 한번 켜 쳐다보고 흠도 한 번 만져보면서 맘껏 뛰어다닐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

5개월에 접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아이들 교사 그리고 내 스스로도 아직 적응중이다.

머릿속으로는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행복하다” 라는 말을 자주 떠올리면서 오늘도 열심히...



좌충우돌 늦각이 초보엄마의 육아일기

8탄 초보에서 경험자로 육아 그 일 년의 노하우 대 공개^^

김수연 · 회원

아기를 키우면서 겪는 첫 번째 관문 모유수유!

요즘 모 게그프로그램에서 출산드라가 외치듯 자연분만과 모유수유는 모든 임산부들의 희망사항이다. 이는 아기와 엄마와의 애착관계 형성에도 좋지만 출산 및 육아비용도 저렴하게 들기 때문이다. 누구든 다 원하지만 누구나 다 이 산을 넘는 것은 아니다. 이 산을 수월하게 넘으려면 출산 한 두 달 전 부터 유방마사지와 유두관리를 해야 한다.

유방마사지는 산부인과 흉피를 찾아보면 많이들 나와 있으니 찾아보면 될 것이고 유두는 샤워 후 유두부분에 올리브오일을 묻힌 화장 솜을 대고 랩으로 유방을 감싼 다음 10분 정도 지나면 유두사이 사이에 노란 피지가 보일 것이다 이것을 가제 수건 등으로 살살 제거하면 된다. 유두도 마사지하는 법을 찾아보아 꼭 해준다. 특히 함몰일 경우는 여러 보조제품이 있으니 미리 포기하지 말고 주변 선배엄마들의 조언을 받으면 된다.

출산 후 3일 정도 지나야 젖이 돈다. 이 때문에 3일이 지나서 젖을 물리는 엄마들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일이다. 아기가 태어나면 될 수 있는 대로 자주 젖을 빨려야 젖이 잘 돌며 아이도 쉽게 엄마젖을 빨 수 있게 된다. 젖병으로 먹다 엄마젖을 빠는 일은 아기에게 10배 이상 힘이 들기 때문에 우리의 영악한 아기(?)들은 있는 힘껏 저항한다.

일이 이렇게 진행되어졌다면 굶기기 작전에 들어가야 한다. 대부분 하루정도면 성공하는데 이 하루가 정말이지 고통스럽다 아기는 아기대로 용을 쓰며 배고프다고 울지, 엄마는 엄마대로 뻥뻥하게 부른 가슴은 가슴대로 아프지 거기다가 아기가 울어 재치면 가슴이 미어진다. 여기에 주변 시어머니나 신랑이





‘이러다가 애 잡는 거 아니야?’ 하고 한마디만 보태면 굳건하던 엄마 마음도 흔들려서 모유수유여 안녕! 이 되어버린다. 눈 딱 감고 하루정도면 정말로 편한 모유수유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 언제 어디서든 어떤 자세로든 즉석에서 따뜻하고 간편하게 해결되는 모유수유 정말 강추입니다. 임신하면서 편 살도 쏙 들어간답니다.

아기를 키우면서 겪는 두 번째 관문 젖떼기!!

보통 돌전후로 젖을 끊지만 이 젖 끊는 것 또한 쉽지 않은 절차이다. 그동안 배고플 때나 놀랄 때나 심심할 때 아기의 위안이 되는게 바로 젖이다. 예은이도 무척이나 젖을 좋아해서 수시로 와서 옷을 들춰서 젖을 꺼내(?)먹었다. 나 또한 젖먹는 예은이 모습이 너무 예쁘고 아쉬운 생각에 24개월까지 먹이고 싶었지만 아기의 치아가 삭는 문제와 구강구조가 돌출이 되는 문제점들이 있어 한달 정도의 시간을 들여 17개월에 젖떼기에 성공했다.

남들은 약을 먹이라 유두에 빨간약을 발라라 쓴 약을 발라라 의견도 분분했지만 나는 그토록 좋아하는 젖에 대해 안 좋은 기억을 주는 게 내키지 않았고 엄마 또한 젖을 못 먹게 하는 반대자가 아닌 먹게 해주고 싶어 하는 협조자로 남고 싶었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대일밴드를 유두에 붙이는 방법이었다. 이렇게 하니 옷을 들춰 젖을 찾던 예은이가 유두가 없음에 당황했고 나도 같이 놀라며 ‘어! 찌찌가 없어졌네?’ 하니 옷을 내리고 저만치 가더니 논다.

물론 이렇게 쉽게 끊진 못한다. 며칠은 밤새 젖 달라고 울어대는 아가를 달래야하고 업어야 하고 그러면서 점점 젖 먹는 횟수를 줄여가는 것이 방법이다. 각자 맞는 방법이 있으니 상황에 맞게 선택해서 성공하시길

예은이는 요즘 눈뜨는 순간부터 잠자기 직전까지 내손 붙들고 냉장고 가는 게 일이 되었다. 덕분에 간식비는 많이 늘어났지만 한 단계 한 단계 커가는 모습이 기특하다

마지막 관문 예은이는 지금 기저귀 떼기 연습중!!!

이른 감이 있지만 서서히 기저귀 떼는 연습에 들어갔다. 기저귀 값 좀 아껴보기 위해서가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보송보송한 엉덩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이다. 뭐 아직 18개월이니 여유 있게 생각하고 있다. 우선 용가를 했을 때 곧바로 엄마에게 알리기를 연습중이다. 두 번에 한번 꼴로는 용가하고 나서 기저귀와 물티슈를 가지고 내 앞에 놓는다. 그 외에는 그냥 싸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다니다가 나의 후각 레이다에 잡혀 기저귀를 갈기가 일쑤이다.

몇 일전 친구에게 ‘기저귀 떼는 비디오’를 선물 받았다. 호기심으로 열어보았는데 의외로 예은이가 너무 너무 좋아한다. 내용은 토비라는 여자아이가 할머니에게 선물 받은 변기를 사용하는 법을 배우게 된다는 내용이다. 모방을 좋아하는 아이들이라서 비디오만 보고도 금방 따라 해서 배변훈련이 된다는 것이다. 말대로 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예은이가 눈만 뜨면 용가 용가 외치면서 비디오 리모콘을 나에게 들이댄다 비디오를 틀어달라는 얘기다. 그래서 틀어주면 연속으로 두 번은 봐야 다른 일을 한다. 그러다가도 변기나 용가 쉬야라는 말만 나오면 텔레비전 앞에 나를 끌어다 앉힌 다음 리모콘을 손에 쥐어준다. 이러다 혹 때려다 혹 붙이는 격으로 비디오 중독이 되는 건 아닌가 싶다(?) 효과가 있는지는 더 두고 볼일이다.

우리보아요^^

1. 굴비를 좋아하는 예은이 아침밥 준비하는 나에게 썩대에서 고기 굽는 후라이팬 꺼내며 하는 말 “고기~ 고기~”
2. 수제비에 들어간 조개를 먹이려고 했더니 고개를 흔든다. 그래서 “예은아! 고기야!” 했더니 얼른 받아먹는다.
3. 동네 슈퍼에 꼭 들리는 예은이가 어김없이 까까를 하나 집어왔다. 내가 “예은아 얼마에요 해야지”하니깐 예은이 하는 말 “얼마냐”
4. 예은이가 파리 잡는 방법- 저 멀리 있는 파리를 보면서 코앞에서 손뼉을 친다.

예은이가 11월이면 19개월이 되어간답니다^^

세월 참 빠르죠?

우리네 아이들의 한 면을 장식했던 예은이 육아일기가 이번호로 막을 내린답니다.

그동안 재미있게 읽어주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예은이 자랑찬 보육교사의 딸로 자랄 키우려 합니다^^





1

한일보육교류연수

17명의 일본 보육관계자가 한국을 방문하여 당시 지역사회탁아소연 합회 소속 빈민탁아시설을 방문하는 것으로 1992년 한국과 일본 간의 보육교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로 15년간 양국간의 보육교사연수 교류는 이어져 왔으며, 올해로 13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교류는 매해 한해는 일본의 보육교사들이 한국의 보육시설에서 연수를 하고, 그 이듬해에는 한국의 보육교사들이 일본의 보육시설에서 연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한국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해로 광주에 소재한 한일보육교류연수협의회 소속 보육교사 심민화(삼광) 유미애(삼광) 박말신(도담) 김수중(도담) 천미애(광주아기둥지) 5명과 한국보육교사회 소속 보육교사 김계임(인천) 박부자(경기) 최종문(서울) 이경녀(서울) 4명이 연수에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본 연수중에 보내주신 연수단의 글입니다.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

최종문/회원 서울

2005년 10월 17일

몇 일 전부터 달력에 빨간색 펜으로 동그라미에 그것도 모자서 파란색으로 별표까지 해놓을 만큼 기대하고 고대 했던 일본 연수였다.

비행기를 타고 오는 2시간여 동안 내 머리 속엔 온통 일본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있었다. 과연 내가 한국도 아닌 일본이란 나라 말도 다르고 생각도 다른 나라에서 연수를 잘 할 수 있을까. 정말 잘 마칠 수 있을까.

비행기에서 내려 도착한 일본은 한국의 날씨와는 달리 여름옷을 입어도 손색이 없을 만큼 따뜻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지메 마시메...”

내가 초등학교생일 때 시작한 한·일 보육 교류가 벌써 13년째란다.

올해의 주인공인 나를 비롯한 9명의 교사를 반겨주는 일본의 보육교사가 나와 있었다. 이어지는



간단한 식사와 자기소개 후 찾아온 우리들의 숙소는 우리의 짧은 비해 피로를 씻어주기에 너무 충분한 곳이었고, 그렇게 시작된 일본연수는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 줄까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첫날 저녁 환영회의 식사에서 보육연수생들 위해 노력해 오신 여러 선생님을 보면서 다시한번 난 나의 마음을 다잡았다.

오리엔테이션을 침으로 시작한 둘째 날은 그렇게 만나고 보고 싶었던 20년 동안이나 일하셨다는 남자보육교사를 만날 수 있었다.

그분과 함께 배정받은 세이와로 가는 길은 참 꿈만 같았다.

잘 정리되고 정돈된 깨끗한 도로와 작고 아담한 집들과 좁은 골목길 길이 아무리 좁아도 잘 달릴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차들 그리고 자전거를 가르며 내 생각의 꼬리를 잡는 시원하고 맑은 바람 이런 저런 생각과 대화 속에 나타난 세이와 보육원...

좁은 길 끝에 나타난 넓은 마당과 큼직 큼직한 교실들,

하얗고 기쁘게 뛰어 노는 아이들....

난 정말 근 망치로 뒤통수를 크게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자유보육, 인권보육”의 이야기들...

한동안 계속되는 세이와 보육원 원장님의 설명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일시보육, 휴일보육, 방과후보육에 합동보육까지,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총체적인 모든 보육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교실과 놀이터(마당)의 구분이 없고, 교실위에 하늘이 있는 정말 이상적인 시설임에 틀림이 없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는 동안 난 좀 이상한 점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되었다.

첫번째로는 일본의 아이들은 선생님이 “시작하자”라고 하기 전엔 아무도 물건을 만지지 않았다. 만약 한국의 아이들이었다면 그랬을까?

그리고 두번째로 아무리 심하게 넘어져도 울지 않았다. 눈물조차도...

마지막으로 좋은 시설과 시설을 받쳐주는 좋은 제도와 지역사회까지 그런 일본의 보육시설이 왜 하필이면 유럽의 최고라 불리워지는 보육시설이 아니라 왜? 한국의 보육시설과 교류를 하려고 하는 것일까?

아직 그 답을 얻진 못했지만 분명해진 건 이번 한일 보육교류가 내 인생에 한 획을 그을 것임은 분명하고 또, 한국보육의 현시점과 문제점 그리고 내가 나아가야 할 길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일본 연수중에...

심민화/한일보육교류연수협의회, 삼평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길을 걷은 지 이제 3년하고 2달이 넘어갑니다.

첫 출근 할 때의 설레임...

초롱초롱한 눈빛을 가진 아이들과 함께 한다는 것이 세상 어느 일보다도 뿌듯하고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이제 설레임은 익숙함으로, 차츰 나의 생활이 안정감과 무료함을 함께 하며 지내던 저에게 시과의 전환의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보다 앞선 유아교육의 현실과 낯선 나라의 방문이라는 설레임을 가지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부풀려 오른 설레임은 잠시,

빽빽한 일정 속에서 차츰 '가깝고도 먼 나라' 라는 일본의 느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문화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또 다른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날,

1세반...우리나라의 2-3세반에 투입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짝짝하고 귀여운 반이었는데...말이 통했으면 더 가까워질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말로는 할 수 없는, 눈빛이나 손짓 하나만으로도 통 할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언어가 아닌 느낌만으로 전해지려고 노력하면서 송아지만 친구들이랑 더 가까워 질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영아 자신들이 좋은 느낌과 불쾌한 느낌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0세반의 기저귀 없이 생활하는 것은 놀라운 그 자체였습니다.

한국에서처럼 일정한 때가 되어 부모와 선생님의 노력으로 기저귀 떼기에 성공하는 게 아니라, 유아의 느낌으로 차츰 습관화 하면서 조금은 늦을지라도 유아 자신이 주체가 되어 기저귀를 떼게 된다는 것은 한국에서도 시도해 볼만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바깥놀이 문화가 발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연수기간동안 그리 춥지만 않았지만 반팔을 입고 활동하기에는 서늘한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들이 콧물은 흘리고 있으면서도 반소매 뒀옷이나 반바지를 입은 아이들이 다수였습니다. 바깥놀이 시간도 2시간 이상이었으며, 오후의 바깥놀이 시간은 어두워져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체력은 커지고, 체력은 저하된 우리 유아들에게 이런 놀이시간이 종전의 시간보다 조



금 더 길게, 그리고 다양한 놀이감을 제공해서 그 시간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그 어떤 놀이감보다 정서와 신체 발달에 크게 이바지하리라고 봅니다.

실내에서의 활동은 바깥놀이만큼은 풍부하지 않은 게 조금은 아쉬웠습니다.

큰 교실인데도 영역구분이나, 교사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은 한국의 교육을 따라오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본의 개인주의 문화와, 한국의 정서의 차이가 여기에서 나오는 거 같았습니다.

2주간의 일정인데...이제 일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느낀 것 같지만, 오늘도 하루를 보내면서 또 다른 느낌들이 가슴깊이 물려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 느낌 하나하나 가슴깊이 새겨 한국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작게는 내 인생에 있어서 생각의 전환의 기점이 될 것이고, 크게는 유아교육에 있어서 자그마한 변화의 몸부림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은 일정 알차게 많은 거 배우려고 합니다.

유아교육 분야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언제나 배우는 자세로 눈과 마음을 열고 배우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것을 또 한번 느낍니다.

너무나도 익숙한 글귀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글귀 한마디...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2

소모임-영어강독모임

지난 9월21일부터 격주 수요일 저녁 서대문 사무실에서 이경아(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박사과정)선생님의 도움을 받아 영어강독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원 9명이 함께 하고 있으며 <Power and Emotion in Infant-Toddler Day Care Center>이라는 Robin Lynn Leavitt 의 책을 함께 읽고 토론하고 있습니다.

3회모임의 주제였던 4장 emotion을 토론한 후 참가자인 김지희회원이 쓴 감상을 실어 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세 이하 아이들의 생활 경험을 살펴보고, 그 안에 발생하는 문제적 경험들, 일상에 미시적으로 각인되어 있는 권력, 그 권력과 결합되어 있는 정서를 적어놓았다.

그중 이번에 내가 번역을 맡은 부분이 [정서]라는 장중에서 '소외된 노동으로써의 보육'인데 한 마디로 끔찍.

실제 나 역시 정서노동자로서의 보육노동자 입장에서 애정 충만한 정서에 대한 요구와 정서적 중립의 역할을 잘 수행하라는 전문성에 대한 요구 사이에서 때때로 갈등했던 것 같다. 게다가 동시에 다발적 사건사고와 아이들의 요구사항에 묻혀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감정의 격앙을 느낀다.

시간이 좀 더 흐르면서 이러한 정서 왜곡 상태를 참지 못하지만 아이들에게 쏟을 순 없으니 정서를 철회하기에 이른다. 그리하여 일정 시간 지나면 아동과의 상호작용에서 나 자신도 무심하고 기계적인 대응을 하고 있음을 느끼게 된다.

정서적 교감이 없는 돌봄, 이 정도 되면 어린이집은 소외가 계속 전이되면서 다양한 폭력의 피해자가 밀집된 느낌이다.

그런데 읽다보니 정서노동자에게 있어서 정서노동의 한계시간이란 건 경력이나 능력, 또는 노동조건에 항상 등과는 관련 없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이를 보면 그 날 모임에서 자신이 아동과 정서적 교감 및 상호작용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신참이나 베테랑이나에 관계없이, 1일 4시간에서 30분까지 다양했다.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모든 보육노동자는 아동과의 정서 교류를 중단하고 정서를 철회시킨 상태에서 기계적 대응 내지는 무대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때는 오히려 아동과 있는 것보다 보육 준비활동을 하거나 심지어 청소, 사무 등의 잡무를 선호하는 사람도 다수이다.

보육노동자 1인에게 1일 4시간 초과의 아동 직접 돌봄을 수행하는 것은 양자간 인격 파괴 행위가 아닌가 싶다.

어여 1반 2교대, 3교대제를 실현시켜야 할텐데...

9월5일 일본연수단 1차 준비모임이 있었습니다. 1차 준비모임에서는 일본연수에 참가하는 최종문, 박부자, 김계임, 이경녀 회원이 참가하여 일본연수 사전 준비를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일본연수참가 경험자인 이수미, 강영신 회원님이 참석하여 일본연수 시 고려사항에 대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9월6일 보육료자율화 반대 및 국공립확충을 위한 연대 회의가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여성부의 2006년 예산안에 대한 검토와 함께 각 참여단위의 활동공유가 있었습니다.

9월15일 보육료자율화 반대 및 국공립확충을 위한 연대 회의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의 황윤옥사무총장의 발제로 비영리 보육법인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9월16일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의 자격검정회의가 있었습니다.

9월21일 영어강독모임 첫모임이 있었습니다. 이경아님과 이선주, 이교진, 김지희 이경녀, 서재림, 황미혜, 서주희, 김휘경님이 함께 하였습니다.

9월 23일 광주지역 전망논의가 도담도담어린이집에서 있었습니다.

9월 24일 일본연수단 2차 준비회의가 대전 근로자복지회관에서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는 한일보육교류회 소속 연수단과 한국보육교사회 소속 연수단이 함께 참석하여, 일본연수기간 중에 있을 한일문화교류의방 준비등을 의논하였습니다.

9월26일 보육료자율화 반대 및 국공립확충을 위한 연대 회의가 있었습니다.

10월4일 '보육예산과 보육서비스 질 제고 방안 마련'을 주제로 중앙보육정책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우리회는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회에서는 서은희대표가 참석하였습니다.



- 10월5일 영어강독모임 2차 모임이 있었습니다.
- 10월7일 (재)실업극복국민재단함께일하는사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노인 전통문화지도사 판권사업 심사위원으로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0월8일 전망팀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0월11일 여성단체연합 조직순회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여성연합의 정현백공동대표, 남윤인순상임대표, 박영미공동대표가 참석하였고, 우리 회의 서은희대표와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여, 보육현안과 조직현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10월12일 부산지역 전망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0월14일 보육교사자격관리사무국 자격검정위원회 회의에 이강선주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 10월15일 수도권 전망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10월17일 한일보육교류연수단이 2주간의 일정으로 출국하였습니다.
- 10월18일 보육단체연대회의가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원명순회장, 서울시보육시설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 김심환위원장,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황운옥사무처장, 한국보육교사회 이강선주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보육료자율화에 대한 각 단체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 10월19일 영어강독모임 3차모임이 있었습니다.
- 10월26일 보육료자율화 반대 및 국공립확충을 위한 연대회의가 여성단체연합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이 날 회의에서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100개소로 대폭 축소한 2006년 여성부 보육예산에 대한 예산국회 대응방안 논의와, 열린우리당 보육정책에 대응활동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시설장의 눈으로 본 세상

이인희 · 회원

서울로 출근한지 두 달이 채 안 되었다. 남들은 물 따라 산 따라 귀농 한다는데, 혹독한 출근 전쟁에, 매연도 마다 않고, 날마다 인천에서 서울로 온다. 마흔을 바라보는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란 그리 녹록하지 않다. 아이들과 뒹굴며 12년을 생산직(?)으로 근무하다, 하루 아침에 사무직으로 둔갑하려니, 이래저래 낯설기 그지없다. 어디 그 뿐인가. 선 자리마다 보이는 게 다르다더니, 이 자리에서 보이는 문제들은 또 다른 산이다.

먼저, '전문성'의 문제이다. 보육교사는 전문직이다. 시설장 또한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책인데, 시설장으로 임용되기 전에 시설장이 되기 위한 어떠한 교육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시설장 자격요건이 갖춰지면, 신규 시설장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의 문제에서 한 가지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일 하는 시설장들의 '전문성'이다. 어린이집의 모든 일 처리가 문서화 되고, 교사들과 공유 할 수 있도록 체계화 되어야 한다.(물론, 잘 하고 있는 곳이 더 많겠지만)

요즘처럼 문제가 생겨서 정리되는 시설이 많은 상황에서, 전 시설장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수수께끼 같은 문서들을 대하는 신임의 마음은 답답하기 이를 데 없다.

두 번째 생각해 볼 문제는, 교사들의 기본적인 자질의 문제이다. '얼마나 혹독하게 일 해 왔으면...' 하는 안타까움과, '좀 더 책임감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교차한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교사의 한마디로 아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왜 순간의 나태함과 안일함을 버리지 못하는 걸까. 환경 탓, 처우 탓, 모두 맞는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로서 잊어서는 안 될, 긍지와 자존감이 부재함에 너무도 안타깝다.

누군가는 '월급이 줄어든 원장님' 이라고 장난삼아 놀린다. 맞다. 시설을 옮기면, 보육교사로서의 경력이 인정되지 않다 보니,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교사로서는 답안내기 힘들었던, 좋은 어린이집에 대한 꿈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또한 만만치 않음을 절감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되어, 여건이 좋아지고 있긴 한, 그에 대한 지침이나, 해석이 지자체에 따라 다르다 보니,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우를 해 주고 싶어도, 아이들에게 좀 더 유익한 나들이를 나가고 싶어도, 실행할 수 없을 때가 많다.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바꿔 주고 싶다는 의욕이 솟구쳐 오를 때, 걸림돌들이 내 발목을 잡곤 한다. 아~! 세상을 바꾸려면, 이 '어린이집'이란 우물을 벗어나야 하는구나. 국회로 진출하든, 행정직 공무원 시험이라도 치러야 하나 보다.



알림란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무료 파견 사업

실업극복국민재단은 노동부 인가 공익재단법인으로서, 청년, 여성가장, 중장년 근로빈곤층 및 실업자들을 위한 공익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바, 금번에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을 받아 은퇴노인들이 보육시설에서 전통예절, 동화구연, 전통놀이 등을 무료로 가르칠 수 있도록 파견하는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사업명 :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 파견사업
- 파견기간 : 2005년 10월 24일 ~ 2006년 4월 (중간평가를 통해 지속여부 결정 예정)
- 파견지역 : 서울, 경기, 인천지역 보육시설
- 신청접수 : 한국노인복지관협회(02-702-6080), 한국시니어클럽협회(02-747-5508)

전통놀이 전통예절 전통동화

보육시설에 어르신 전통문화지도사를 무료로 파견해드립니다.

- 파견감사 : 교사경력자등 60세이상 은퇴노인 150여명
2개월간의 교육과정 수료
- 교육내용 : 전통놀이, 전통예절, 전통동화
- 파견형태 : 감시 1인당 평균 주 3회 방문
1회 방문시 2교시 수업가능
3개월 교육 중 복수 신청 가능
- 교육비용 : 무료
- 파견대상 : 서울, 인천, 경기지역내 보육시설
- 사업기간 : 2005년 8월~2006년 4월
- 신청방법 : 희망기관은 아래 연락처로 전화신청
- 보육시설 요청에 따라 프로그램 맞춤 설계가 가능합니다.

-한국노인복지관협회 : 02-702-6080
-한국시니어클럽협회 : 02-747-5508

* 이 사업은 삼성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지원하고
실업극복국민재단 함께일하는사회가 주관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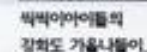


(05년8월24일부터 10월27일까지 입금분입니다.)

김경순, 최지은

이은희 50,000	이기원 30,000	서은희 200,000	김덕환 100,000
------------	------------	-------------	-------------

이미정 5,000	김세희 6,000	김숙희 10,000	김영화 10,000
김은주 10,000	김진명 10,000	신아령 10,000	신주영 10,000
이정님 10,000	장혜자 10,000	주로미 10,000	김경인 20,000
김동현 20,000	김명미 20,000	김심환 20,000	김영옥 20,000
김영옥 20,000	김정윤 20,000	박선하 20,000	백선희 20,000
신현미 20,000	양은희 20,000	오영숙 20,000	오윤정 20,000
이미화 20,000	이준구 20,000	이지수 20,000	이희경 20,000
전정옥 20,000	정승희 20,000	정영화 20,000	정영화 20,000
최영신 20,000	하운하 20,000	한만우 20,000	한상원 20,000
박영미 24,000	오선영 30,000	김민정 40,000	김수애 40,000
남명자 40,000	박정애 40,000	안명희 40,000	오경숙 40,000
유희정 40,000	이옥 40,000	이현경 40,000	정승희 40,000
권혜진 60,000	김종원 60,000	조창식 10,000	김현빈 20,000
세쌍둥이어린이집 100,000		조인숙 100,000	최순옥 100,000



김수연 회원님이 연재해 오시던 육아일기를 이번 호로 마칩니다. 마치 지난 일년 간 예은이를 함께 키운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재미난 글 써준 김수연님 감사합니다.

매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코너를 집필해주신 류지민회워님이 지난 10월5일 이른 달래미를 순산했어요. 덕분에(?) 이번호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코너는 쉽니다.

우리내아이를 특별기고 코너에서는 '특별히' 모
두와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보내오시면 실
어드립니다. 언제나 열려있는 우리 회 대표메일
로 보내주세요.

친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옵니다. 다가 올 한 해를
마감하는 분주한 날들도 건강조심하시고, 행복하
세요~



한국보육교사회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

1997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창립총회에는 전국 각지의 보육교사 10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비전과 목표를 논의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운영규약을 제정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선출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무를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비를 납부했습니다.

창립총회에서는 한국보육교사회의 회장을 위임했습니다.



창립총회 참석자

교사 선언문

1997년 7월 한국보육교사회 창립총회에서

1. 보육교사는 교육활동에 있어서 자주성을 갖는다.
1. 보육교사는 항상 연구하고 실천하는 자세로 교육에 임한다.
1. 보육교사는 사회, 경제적 지위와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
1. 보육교사는 '육아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회, 정치, 문화활동을 한다.
1. 보육교사는 '어린이 인권'을 소중히 하고 '인권보육'을 실천한다.
1. 보육교사는 우리 아이들이 국토의 소중함,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알도록 교육한다.
1. 보육교사는 아이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교육환경의 개선,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활동을 한다.

보육교사와 보육문제에 관심있는 분을 회원으로 모십니다.

- 정회원이 되면.....
 - ◆ 매월 1만원이상의 회비를 납부합니다.
 - ◆ 정회원의 권리로써 사업에 대한 의결권과 선거권/피선거권을 갖습니다.
 - ◆ 연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 본회에서 주최하는 교육행사 참여시 회원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본회에서 운영하는 각종 소모임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 본회에서 발간하는 자료집 구입 시 20%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면.....
 - ◆ 연 4만원의 회비를 납부하며
 - ◆ 격월 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 1년 구독과 본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강좌와 행사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후원회원이 되면.....
 - ◆ 연 6회 발행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외비납부는

국민은행 347801-04-001141 한국보육교사회로 입금하시고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0505-362-8568)

| 이런 일을 합니다 |

연구하는 교사, 실천하는 교사, 발전하는 보육 한국보육교사회

- 보육프로그램, 보육정책/제도 연구, 개발
- 보육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제반 활동
- 교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다양한 전문소모임 운영
- 국내보육관련 단체, 사회단체와의 다양한 연대활동
- 보육관련 국제교류활동
- 교사들의 현장연구 및 자주적 활동
- 격월간지 '우리네아이들', 보육관련 자료 발간
-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한 본회활동 및 보육관련 정보 제공
- 어린이문화, 어린이인권 보장을 위한 제반 활동

부설 한국보육교사회 교육센터

-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월간 좋은엄마]에서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엄마들의 이야기 '월간 좋은엄마'!
국내 유일의 '여성 육아 교양지'로 자리잡은 '월간 좋은엄마'는
엄마의 고민을 듣고 정보와 대안을 제시하는 잡지,
아이를 키우며 웃고 우는 엄마의 이야기를 담은 잡지,
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엄마들의 노력을 담은 잡지,
무엇보다 '엄마라서 행복한 이유'를 발견해내는 잡지입니다.
'월간 좋은엄마'는 이미 10만명의 독자와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좋은엄마
아이와 함께 자라는
↓
엄마들 세상

한국보육교사회를 통해 [월간 좋은엄마] 정기구독을 신청해주시면 한 분당 5000원씩 한국보육교사회를 후원합니다. 구독신청은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해 가능합니다. (1년 구독료 25,000원)
한국보육교사회 홈페이지 www.kdta.or.kr 해피로그 <http://happylog.naver.com/childcare.do>
한국보육교사회 전화 0505-362-8568